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1995. 12.

최 수 영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이 우 영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조 민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최 진 욱 (연구조정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목 차

제 I 장 서 론	1
1. 조사목적	1
2. 조사내용	2
3. 조사방법	3
4. 표본의 특성	6
제 II 장 북한관련 인식	8
1. 북한에 대한 관심	8
2. 북한에 대한 인식	11
3.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13
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17
5. 북한의 인권상황	18
6.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21
7. 북한의 변화 정도	25
8. 김정일 정권의 개방 전망	27
9. 북한의 장래	31
10. 남북한의 분야별 비교	32
11.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	45

제Ⅲ장 통일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	54
1. 통일의교의 대상국	54
2. 한국과 가까운 나라	57
3. 북한과 가까운 나라	60
4. 북한의 대일, 대미 관계개선	63
5. UN 안보리 진출의 영향	66
6. 남북한 관계 전망	66
제Ⅳ장 통일정책관련 인식	71
1. 통일에 대한 견해	71
2. 통일 예상시기	74
3. 통일정책 수립과정	75
4.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79
5. 남북관계 개선 우선 분야	80
6. 통일기반 조성의 과제	85
7. 통일교육의 내용	86
8. 통일교육의 방법	91
9. 통일후 바람직한 체제	95
10. 통일후 분야별 전망	98

제 V 장 통일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108
1.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108
2. 북한의 식량사정	111
3. 대북 경제지원	111
4. 남북경협 및 인적 교류 추진	116
5.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121
제 VI 장 요약 및 결론	126
1. 북한관련 인식	127
2. 통일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	129
3. 통일정책관련 인식	131
4. 통일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133
부록: 설문지	137

그림 목차

<그림 2-1> 북한에 대한 대화 정도	9
<그림 2-2> 북한은 어떤 대상	12
<그림 2-3>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15
<그림 2-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18
<그림 2-5> 북한의 인권상황	20
<그림 2-6>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23
<그림 2-7> 북한의 변화 정도	26
<그림 2-8> 김정일 정권의 개방 전망	29
<그림 2-9> 북한의 장래	32
<그림 2-10> 남북한 분야별 비교	34
<그림 2-11-1> 남북한 이질화 정도	46
<그림 2-11-2> 북한출신 배우자의 문제점	52
<그림 3-1> 통일외교의 대상국	55
<그림 3-2> 한국이 가깝게 느끼는 나라	58
<그림 3-3> 북한이 가까이 지내려는 나라	61
<그림 3-4> 북일·북미 관계개선에 대한 협조	64
<그림 3-5> 유엔 진출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67
<그림 3-6> 남북한 관계 전망	69
<그림 4-1> 통일에 대한 견해	72
<그림 4-2> 통일 예상시기	75

<그림 4-3> 통일정책 수립과정	77
<그림 4-4>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80
<그림 4-5> 남북관계 개선 우선 분야	82
<그림 4-6> 통일기반 조성의 과제	86
<그림 4-7> 통일교육의 내용(1순위)	88
<그림 4-8> 통일교육의 효율적 방법	93
<그림 4-9> 통일후 바람직한 체제	96
<그림 4-10> 통일후 전망	99
<그림 5-1>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109
<그림 5-2> 북한의 식량사정	112
<그림 5-3> 대북 경제지원	114
<그림 5-4-1> 남북경협	117
<그림 5-4-2> 인적 교류 추진방안	119
<그림 5-5-1> 남북정상회담 개최	122
<그림 5-5-2>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124

표 목차

<표 1> 응답자 분포	7
<표 2-1> 북한에 대한 대화 정도	10
<표 2-2> 북한은 어떤 대상	14
<표 2-3>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16
<표 2-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19
<표 2-5> 북한의 인권상황	22
<표 2-6>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24
<표 2-7> 북한의 변화 정도	28
<표 2-8> 김정일 정권의 개방 전망	30
<표 2-9> 북한의 장래	33
<표 2-10A> 남북한 분야별 비교: 자유	36
<표 2-10B> 남북한 분야별 비교: 평등	37
<표 2-10C> 남북한 분야별 비교: 자주	38
<표 2-10D> 남북한 분야별 비교: 민주	39
<표 2-10E> 남북한 분야별 비교: 도덕	40
<표 2-10F> 남북한 분야별 비교: 문화·예술	41
<표 2-10G> 남북한 분야별 비교: 군사력	42
<표 2-10H> 남북한 분야별 비교: 인권	43
<표 2-10I> 남북한 분야별 비교: 경제	44

<표 2-11-1A> 남북한 이질화 정도: 언어	47
<표 2-11-1B> 남북한 이질화 정도: 가족생활	48
<표 2-11-1C> 남북한 이질화 정도: 직장생활	49
<표 2-11-1D> 남북한 이질화 정도: 여가생활	50
<표 2-11-1E> 남북한 이질화 정도: 풍습	51
<표 2-11-2> 북한출신 배우자의 문제점	53
<표 3-1> 통일의교의 대상국	56
<표 3-2> 한국이 가깝게 느끼는 나라	59
<표 3-3> 북한이 가까이 지내려는 나라	62
<표 3-4> 북일·북미 관계개선에 대한 협조	65
<표 3-5> 유엔 진출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68
<표 3-6> 남북한 관계 전망	70
<표 4-1> 통일에 대한 견해	73
<표 4-2> 통일 예상시기	76
<표 4-3> 통일정책 수립과정	78
<표 4-4>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81
<표 4-5> 남북관계 개선 우선 분야	84
<표 4-6> 통일기반 조성의 과제	87
<표 4-7A> 통일교육의 내용(1순위)	90
<표 4-7B> 통일교육의 내용(2순위)	92
<표 4-8> 통일교육의 효율적 방법	94
<표 4-9> 통일후 바람직한 체제	97

<표 4-10A> 통일후 전망: 정치적 민주화	100
<표 4-10B> 통일후 전망: 경제성장	101
<표 4-10C> 통일후 전망: 지역감정	102
<표 4-10D> 통일후 전망: 빈부격차	103
<표 4-10E> 통일후 전망: 노사문제	104
<표 4-10F> 통일후 전망: 세대갈등	105
<표 5-1>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110
<표 5-2> 북한의 식량사정	113
<표 5-3> 대북 경제지원	115
<표 5-4-1> 남북경협	118
<표 5-4-2> 인적 교류 추진방안	120
<표 5-5-1> 남북정상회담 개최	123
<표 5-5-2>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125

제 I 장 서 론

1. 조사목적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예년과 다르없이 1995년에도 기대에만 그치고 말았다.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욱 경색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교착은 비상식적인 행동과 우리 정부를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일관해 온 북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대내외정책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김일성의 유훈관철을 내세우면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로지 북한은 대미·일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난과 국제고립에서 탈피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심화와, 특히 수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북한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대북 쌀지원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돌출적인 행동과 무장공비 침투 등은 국민들에게 남북관계와 통일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비록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지만, 북한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관계가 반드시 비관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때 국민들이 북한정세, 통일관련 주변 환경 및 정부의 통일정책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1992년 이래 민족통일연구원의 계속사업인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파악·수렴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를 토대로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 및 합리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내용

1995년도 여론조사에서는 통일문제 관련사항을 북한관련 인식, 통일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 통일정책관련 인식,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 있다.

제Ⅱ장의 북한관련 인식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문1), 북한에 대한 인식(문2), 북한의 적화통일정책(문8),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문7), 북한의 인권상황(문10),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문9), 북한의 변화 정도(문5), 김정일 정권의 개방 전망(문4), 북한의 장래(문3), 남북한의 부문별 비교(문12),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문13, 문14)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Ⅲ장의 통일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은 통일외교의 대상국

(문15), 한국과 가까운 나라(문16), 북한과 가까운 나라(문17), 북한의 대일, 대미 관계개선(문19), UN 안보리 진출의 영향(문23), 남북한 관계 전망(문6)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Ⅳ장의 통일정책관련 인식에서는 통일에 대한 견해(문18), 통일이상시기(문20), 통일정책 수립과정(문25),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문24), 남북관계 개선 우선 분야(문26), 통일기반 조성의 과제(문31), 통일교육의 내용(문32), 통일교육의 방법(문33), 통일후 바람직한 체제(문34), 통일후 분야별 전망(문35) 등이 조사되고 있다.

제Ⅴ장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으로 통일비용과 조기통일(문30), 북한의 식량사정(문11), 대북 경제지원(문27), 남북경협 및 인적 교류 추진(문28, 문29),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문21, 문22)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조사방법

가. 표본추출

이 여론조사는 1995년 12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 및 8개도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고 그 중에서 1,500명을 조사대상자로 추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으로 다단계 지역 무작위 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실제의 표집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5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45개 구와 8개 도의 46개 시·군 지역 등 91개 지역을 선정하고, 1995년 6월에 실시된 지자체 선거시의 유권자 비율에 근거하여 표본수를 배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시지역에서는 동을, 그리고 군지역에서는 읍·면을 선정하고, 3단계에서는 동에서는 통반을, 읍·면에서는 리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전국에서 99개의 최종표집단위를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표집단위인 반과 리에서 성별 및 연령에 근거하여 할당량을 부여하는 할당표집방법을 택하여 각 표집단위별로 15명 내외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부재시 또는 응답을 거절할 경우 동일지역 내에서 성별, 연령 등이 같은 다른 응답자로 대체하였다.

나. 설문 및 면접방법

먼저 조사에 앞서 분야별로 조사항목을 정한 다음 분야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을 작성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사회조사 연구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기술적 문

제를 검토하게 하였다. 그리고 1995년 11월 말 연구원 내에서 자체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문을 더욱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1995년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주)현대리서치연구소의 주관 아래 현지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으로는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면접조사가 사용되었다.

다.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응답내용의 논리성 및 범위 검토를 거친 후 코딩하여 퍼스널 컴퓨터에서 통계프로그램(SPSS ver 6.1 for Windows)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항목별로 기본빈도(frequency)를 구하고, 성별, 연령, 학력 등 배경변수와 교차분석(cross-tabulation)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교차분석은 $P < 0.05$ 의 유의도가 있는 것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결과의 오차는 95%의 신뢰구간에서 표본수 1,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pm 2.53\%$ 를 넘지 않는다.

4. 표본의 특성

본 여론조사는 20세 이상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집된 1,500명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대표한다. 현지조사 결과 총 1,500개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모집단의 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표 1> 참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1990년 현재의 모집단인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남녀 성비는 20세 이상인 모집단의 성비(남자 49.4%, 여자 50.6%)와 거의 일치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30대, 40대의 경우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20대 31.4%, 30대 26.6%, 40대 17.0%, 50대 13.1%, 60대 이상 11.9%)와 차이가 없으나, 50대는 실제의 연령 분포보다 많게, 60세 이상은 적게 표집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모집단의 학력별 분포(불취학 9.3%, 국민 18.5%, 중학 17.2%, 고등 36.2%, 초대·전문 3.5%, 대학 이상 1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본추출단계에서의 계획대로 표집되었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의 분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응답자 분포

구 분		응답자 수	응답자비율	계
성 별	남 자	746	49.7	1,500 (100.0)
	여 자	754	50.3	
연 령	20대	440	29.3	1,500 (100.0)
	30대	416	27.7	
	40대	264	17.6	
	50대	324	21.6	
	60세 이상	56	3.7	
학 력	중졸 이하	324	21.6	1,500 (100.0)
	고졸	673	44.9	
	대재 이상	503	33.5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96	6.4	1,500 (100.0)
	80~119만원	284	18.9	
	120~199만원	520	34.7	
	200~299만원	375	25.0	
	300만원 이상	225	15.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77	45.1	1,500 (100.0)
	경 상	435	29.0	
	전 라	178	11.9	
	충 청	147	9.8	
	강 원	63	4.2	

제Ⅱ장 북한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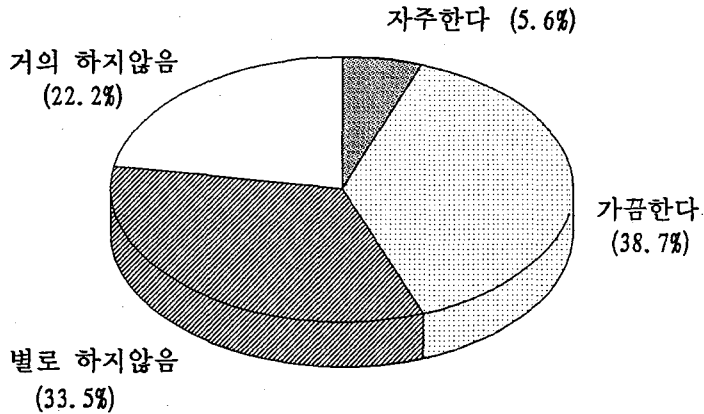
1. 북한에 대한 관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주위 사람들과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가끔한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3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별로 하지 않는다」(33.5%)와 「거의 하지 않는다」(22.2%)였으며, 「자주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6%로 매우 적었다(<그림 2-1> 참조).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극소수만이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합하여도 응답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44.3%) 북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51.7%가 북한관련 대화를 자주 혹은 가끔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36.9%에 불과하여 여자보다는 남자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53.6%가 북한에 대해

<그림 2-1> 북한에 대한 대화 정도



자주 혹은 가끔 대화를 하고 있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이 79만원 이하인 경우 응답자의 35.5%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300만원 이상의 경우 52.9%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57.1%가 북한에 대하여 자주 혹은 가끔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이 다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1> 참조).

<표 2-1> 북한에 대한 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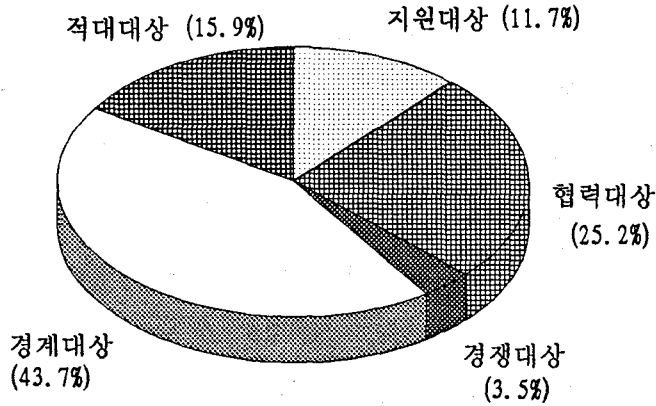
변 수		항 목		별로 하지않음	거의 하지않음	유의도
		자주한다	가끔한다			
성 별	남 자	8.0	43.7	31.0	17.3	$\chi^2=44.56$ P=0.000
	여 자	3.2	33.7	36.1	27.1	
연 령	20대	4.3	37.7	36.8	21.1	$\chi^2=49.10$ P=0.000
	30대	3.4	41.8	35.3	19.5	
	40대	4.5	39.4	36.7	19.3	
	50대	9.0	35.8	25.9	29.3	
	60세 이상	17.9	35.7	23.2	23.2	
학 력	중졸 이하	5.9	29.0	30.6	34.6	$\chi^2=42.66$ P=0.000
	고졸	5.3	42.6	32.4	19.6	
	대재 이상	5.8	39.6	37.0	17.7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4.2	31.3	28.1	36.5	$\chi^2=28.74$ P=0.004
	80~119만원	4.9	35.9	32.4	26.8	
	120~199만원	5.0	38.1	33.8	23.1	
	200~299만원	6.4	39.2	36.0	18.4	
	300만원 이상	7.1	45.8	32.4	14.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9	38.1	34.4	20.5	$\chi^2=28.95$ P=0.004
	경 상	4.1	35.6	35.4	24.8	
	전 라	5.6	38.8	25.8	29.8	
	충 청	2.0	46.3	34.0	17.7	
	강 원	9.5	47.6	31.7	11.1	
전 체		5.6	38.7	33.5	22.2	N=1,500

2.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43.7%로 가장 많았으며, 「협력대상」(25.2%), 「적대대상」(15.9%), 「지원대상」(11.7%), 「경쟁대상」(3.5%)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2> 참조). 즉 북한을 지원 혹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대답은 응답자의 36.9%에 불과한데 반해서, 응답자의 63.1%가 북한을 경쟁,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보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본 연구원이 실시한 1994년도 여론조사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4년도 조사시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도와주어야 할 대상」과 「대등한 협력대상」이라는 대답이 각각 39.2%와 20.4%로, 전체 응답자의 59.6%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계해야 할 대상」(30.7%), 「적대대상」(7.1%), 「경쟁대상」(2.5%) 등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40.3%였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40.3%에서 63.1%로 급격히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북 쌀지원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비상식적인 돌출행동 등이 국민들을 자극하였고 이

<그림 2-2> 북한은 어떤 대상



결과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 배경변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북한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67.0%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서 남자의 경우는 59.1%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52.3%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서 50대는 75.6%, 60대는 84.0%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응답자의 79.0%, 고졸은 66.7%, 대재 이상은 47.9%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력이 낮을수록 북한을 더욱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79만원 이하는 77.1%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서 300만원 이상은 56.0%만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표 2-2> 참조).

3.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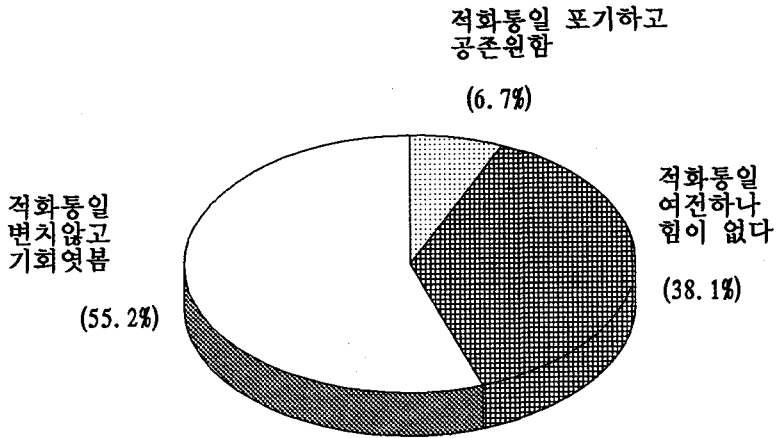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정책이 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5.2%가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이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여전하나 그럴만한 힘이 없다」로 38.1%를 차지하였다. 한편 「북한은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6.7%에 불과하였다(<그림 2-3> 참조). 따라서

<표 2-2> 북한은 어떤 대상

변 수		항 목	지 원 대 상	협 력 대 상	경 쟁 대 상	경 계 대 상	적 대 대 상	유의도
성 별	남 자		13.7	27.2	2.9	41.2	15.0	$\chi^2=11.22$ P=0.024
	여 자		9.8	23.2	4.0	46.2	16.8	
연 령	20대		13.6	34.1	3.6	38.9	9.8	$\chi^2=83.76$ P=0.000
	30대		14.7	27.2	2.9	42.3	13.0	
	40대		10.6	20.5	2.3	48.5	18.2	
	50대		7.7	16.7	4.9	46.0	24.7	
	60세 이상		3.6	12.5	3.6	55.4	25.0	
학 력	중졸 이하		5.9	15.1	5.9	47.2	25.9	$\chi^2=112.04$ P=0.000
	고졸		9.8	23.5	3.4	46.5	16.8	
	대재 이상		18.1	34.0	2.0	37.6	8.3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5.2	17.7	4.2	47.9	25.0	$\chi^2=43.86$ P=0.000
	80~119만원		8.5	21.1	3.2	46.1	21.1	
	120~199만원		11.3	23.8	3.8	43.7	17.3	
	200~299만원		13.6	30.7	3.7	41.3	10.7	
	300만원 이상		16.4	27.6	2.2	42.7	11.1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2.6	24.4	2.7	43.6	16.8	$\chi^2=30.88$ P=0.014
	경 상		12.6	22.5	3.4	48.3	13.1	
	전 라		14.0	28.7	5.6	32.6	19.1	
	충 청		4.8	27.9	4.8	46.3	16.3	
	강 원		6.3	36.5	3.2	38.1	15.9	
전 체			11.7	25.2	3.5	43.7	15.9	N=1,500

<그림 2-3>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이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북한의 적화통일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은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2-3> 참조).

<표 2-3>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항 목		적화통일 포기하고 공존원함	적화통일 여전하나 힘이없다	적화통일 변치않고 기회엿봄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8.2	38.9	52.9	$\chi^2=6.09$ P=0.048
	여 자	5.3	37.4	57.3	
연 령	20대	9.1	39.3	51.6	$\chi^2=23.29$ P=0.003
	30대	7.2	43.3	49.5	
	40대	3.8	36.4	59.8	
	50대	5.6	33.3	61.1	
	60세 이상	5.4	26.8	67.9	
학 력	중졸 이하	4.0	29.9	66.0	$\chi^2=29.88$ P=0.000
	고졸	6.1	38.5	55.4	
	대재 이상	9.3	42.9	47.7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6.3	21.9	71.9	$\chi^2=28.14$ P=0.000
	80~119만원	4.2	34.2	61.6	
	120~199만원	5.6	41.7	52.7	
	200~299만원	8.3	39.5	52.3	
	300만원 이상	10.2	39.6	50.2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6	40.2	53.2	$\chi^2=11.41$ P=0.179
	경 상	8.3	35.6	56.1	
	전 라	5.1	37.1	57.9	
	충 청	4.8	32.7	62.6	
	강 원	6.3	49.2	44.4	
전 체		6.7	38.1	55.2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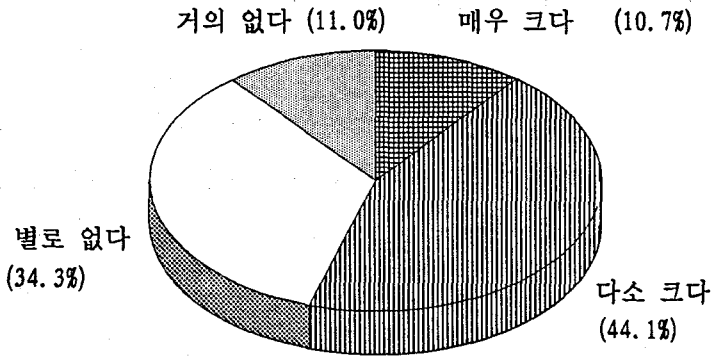
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귀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매우 크다」(10.7%), 「다소 크다」(44.1%)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4.8%였으며, 「별로 없다」(34.3%)와 「거의 없다」(11.0%) 등 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5.3%였다(<그림 2-4> 참조). 따라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국민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1993년도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7%였다. 따라서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2년 전보다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역시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변화 정도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최근 남북한 관계의 경색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성별이나 가구소득과 같은 배경변수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학력별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학력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거주지에 따라

<그림 2-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전라도의 경우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매우 크 다와 다소 크다)을 46.1%로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표 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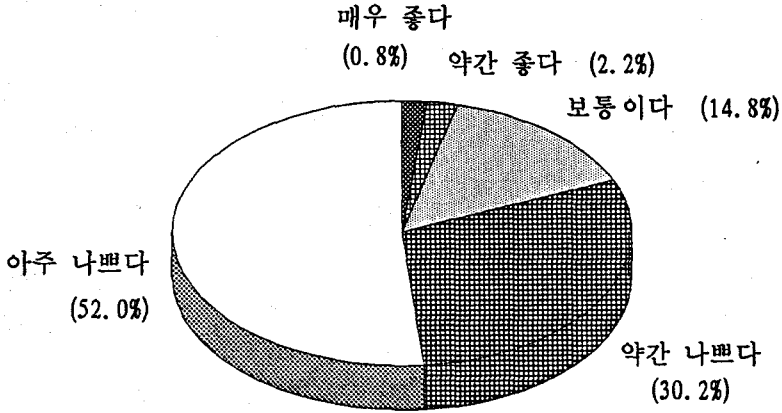
5.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는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남한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표 2-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항 목		매 우 크 다	다 소 크 다	별 로 없 다	거 의 없 다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10.9	41.2	36.6	11.4	$\chi^2=5.47$ P=0.141
	여 자	10.5	46.9	32.0	10.6	
연 령	20대	9.3	45.5	35.0	10.2	$\chi^2=28.11$ P=0.005
	30대	8.4	39.9	38.5	13.2	
	40대	13.6	40.5	36.7	9.1	
	50대	13.3	50.9	26.2	9.6	
	60세 이상	8.9	41.1	32.1	17.9	
학 력	중졸 이하	13.0	49.1	27.8	10.2	$\chi^2=21.83$ P=0.001
	고졸	12.0	44.4	33.6	10.0	
	대재 이상	7.4	40.4	39.4	12.9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5.6	49.0	29.2	6.3	$\chi^2=13.67$ P=0.322
	80~119만원	14.1	40.1	34.5	11.3	
	120~199만원	9.4	45.6	34.6	10.4	
	200~299만원	8.8	43.2	34.9	13.1	
	300만원 이상	10.2	44.9	34.2	10.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3.4	41.5	32.5	12.6	$\chi^2=29.87$ P=0.003
	경 상	7.8	49.7	34.5	8.0	
	전 라	6.2	39.9	41.6	12.4	
	충 청	10.9	44.9	36.1	8.2	
	강 원	12.7	42.9	27.0	17.5	
전 체		10.7	44.1	34.3	11.0	N=1,500

<그림 2-5> 북한의 인권상황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귀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약간 나쁘다」와 「아주 나쁘다」는 대답이 각각 30.2%와 52.0%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좋다」와 「약간 좋다」는 대답은 각각 0.8%와 2.2%에 불과하였다. 한편 북한의 인권상황이 「보통이다」는 대답은 14.8%로 나타났다(<그림 2-5> 참조). 즉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수 중 성별에 따른 차이만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자는 84.1%, 여자는 80.4%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나쁘게(약간 또는 아주 나쁘다) 보고 있으며, 특히 아주 나쁘다는 평가에 있어서 남자는 58.2%, 여자는 45.9%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6.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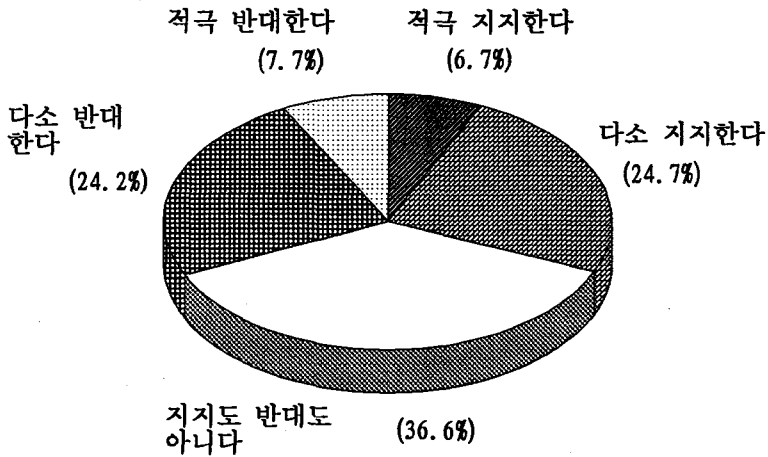
최근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북한에서는 각종 사회일탈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이 이끄는 현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결과 「적극 지지한다」와 「다소 지지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각각 6.7%와 24.7%, 「다소 반대한다」와 「적극 반대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24.2%와 7.7%로 나타났다(<그림 2-6> 참조).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체제를 주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4%,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9%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고 평가한 사람이 36.6%를 차지하여 국민들은 북한

<표 2-5> 북한의 인권상황

변수		항 목					유의도
		매 우 좋 다	약 간 좋 다	보 통 이 다	약 간 나쁘다	아 주 나쁘다	
성 별	남 자	1.1	1.5	13.4	25.9	58.2	$\chi^2=26.98$ P=0.000
	여 자	0.5	2.9	16.2	34.5	45.9	
연 령	20대	1.4	2.7	18.9	30.0	47.0	$\chi^2=19.81$ P=0.229
	30대	0.2	2.2	13.9	29.8	53.8	
	40대	0.8	1.9	11.7	27.3	58.3	
	50대	0.9	2.2	12.7	32.7	51.5	
	60세 이상	0.0	0.0	16.1	33.9	50.0	
학 력	중졸 이하	1.2	1.9	14.2	37.3	45.4	$\chi^2=14.81$ P=0.063
	고졸	0.7	2.2	16.3	28.5	52.2	
	대재 이상	0.6	2.4	13.1	27.8	56.1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3.1	2.1	19.8	30.2	44.8	$\chi^2=16.24$ P=0.436
	80~119만원	0.7	2.8	14.1	32.0	50.4	
	120~199만원	0.6	1.9	15.0	29.4	53.1	
	200~299만원	0.5	2.1	14.1	33.1	50.1	
	300만원 이상	0.9	2.2	14.2	24.9	57.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0.9	1.8	15.4	28.4	53.6	$\chi^2=16.11$ P=0.446
	경 상	0.9	3.0	14.5	31.7	49.9	
	전 라	0.0	2.2	18.0	33.1	46.6	
	충 청	0.7	1.4	12.9	33.3	51.7	
	강 원	1.6	3.2	6.3	23.8	65.1	
전 체		0.8	2.2	14.8	30.2	52.0	N=1,500

<그림 2-6>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주민들이 북한의 현체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북한정권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연령이나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수 중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가구소득이다. 북한에 대한 다른 질문에서는 연령과 학력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나, 북한정권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구소득을 79

<표 2-6>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변 수		항 목					유의도
		적극 지지 한다	다소 지지 한다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다소 반대 한다	적극 반대 한다	
성 별	남 자	7.1	27.7	34.9	20.9	9.4	$\chi^2=18.85$ P=0.001
	여 자	6.4	21.8	38.3	27.5	6.1	
연 령	20대	5.5	19.8	38.4	26.6	9.8	$\chi^2=23.67$ P=0.097
	30대	6.3	27.2	35.8	25.0	5.8	
	40대	7.2	28.0	31.1	25.4	8.3	
	50대	8.6	25.9	38.9	20.1	6.5	
	60세 이상	7.1	23.2	41.1	17.9	10.7	
학 력	중졸 이하	8.6	25.3	36.4	21.6	8.0	$\chi^2=10.93$ P=0.206
	고졸	7.6	25.3	36.7	23.8	6.7	
	대재 이상	4.4	23.7	36.6	26.4	8.9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6.7	28.1	29.2	18.8	7.3	$\chi^2=33.37$ P=0.007
	80~119만원	7.0	28.2	40.1	19.4	5.3	
	120~199만원	6.3	23.8	36.9	24.4	8.5	
	200~299만원	5.1	25.3	35.5	26.9	7.2	
	300만원 이상	5.8	20.0	36.4	27.6	10.2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5.0	22.0	40.3	24.2	8.4	$\chi^2=28.83$ P=0.025
	경 상	7.8	23.7	36.6	24.4	7.6	
	전 라	10.7	30.9	29.8	20.8	7.9	
	충 청	6.1	28.6	32.0	25.9	7.5	
	강 원	7.9	34.9	27.0	28.6	1.6	
전 체		6.7	24.7	36.6	24.2	7.7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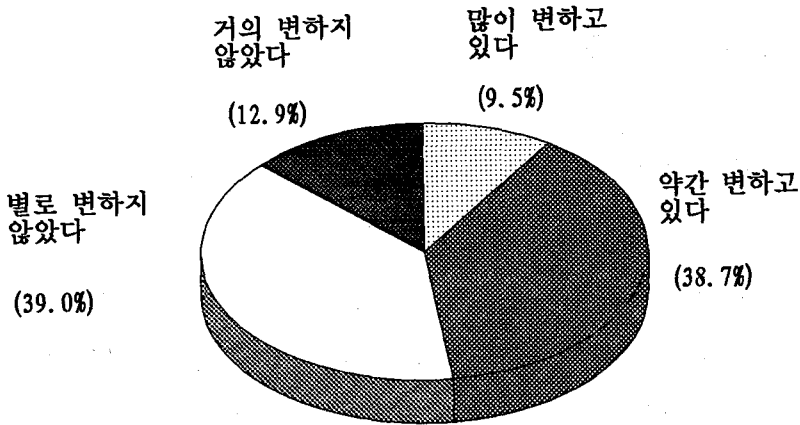
만원 이하, 80~119만원, 12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북한주민들의 북한정권 지지도에 대한 인식(적극 및 다소 지지한다)은 각각 44.8%, 35.2%, 30.1%, 30.4%, 25.8%로 나타나고 있다(<표 2-6> 참조).

7. 북한의 변화 정도

북한의 변화정도와 관련하여 “귀하는 최근 2~3년 동안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많이 변하고 있다」와 「약간 변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9.5%와 38.7%인데 반해서, 「별로 변하지 않았다」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39.0%와 12.9%로 나타났다(<그림 2-7> 참조). 따라서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하여 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48.2%)과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51.9%)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4년도 여론조사시 “귀하는 2~3년전에 비하여 북한이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지의 응답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994년도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변했다」와 「약간 변했다」는 대답이 각각 17.8%와 54.0%였으며, 「거의 변하지 않았다」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대답은 각각

<그림 2-7> 북한의 변화 정도



23.5%와 4.7%로 북한이 변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1.8%를 차지하여 우세하였다. 한편 동일한 질문에 대한 1993년도의 여론조사 결과는 북한이 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5.7%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화 정도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는 연령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북한의 변화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대는 55.7%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은 32.1%만이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는 유의미하나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가구 소득은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2-7> 참조).

8. 김정일 정권의 개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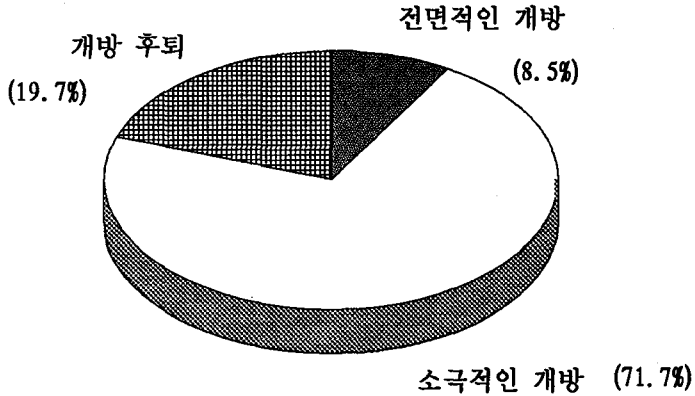
김정일 정권의 개방정책 전망과 관련하여 “귀하는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의 개방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7%가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국민들 대다수는 김정일 정권하의 북한에서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면적인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8.5%에 불과한 반면, 「개방이 후퇴할 것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19.7%에 이르렀다(<그림 2-8> 참조).

북한의 개방정책 전망에 대하여 국민들은 일년 전과 거의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도 여론조사시 “귀하는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높다」가 4.7%, 「다소 높은 편이다」가 39.5%, 「다소 낮은 편이다」가 30.2%, 「매우 낮다」가 15.0%로 나타났다. 1994년도와 1995년도 여론조사의 설문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북한의 개방 가능성에 대한 1994년도 여론조사의 「매우 높다」와 1995년도 여론조사의 「전면적인 개방으

<표 2-7> 북한의 변화 정도

변 수		항 목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았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유의도
성 별	남 자	9.9	39.4	35.9	14.7	$\chi^2=8.20$ P=0.042		
	여 자	9.0	37.9	42.0	11.0			
연 령	20대	10.2	45.5	35.9	8.4	$\chi^2=37.58$ P=0.000		
	30대	11.5	40.1	36.5	11.8			
	40대	6.8	33.7	44.3	15.2			
	50대	8.3	34.0	41.0	16.7			
	60세 이상	7.1	25.0	44.6	23.2			
학 력	중졸 이하	7.4	34.0	42.9	15.7	$\chi^2=10.48$ P=0.106		
	고졸	10.1	38.6	38.2	13.1			
	대재 이상	9.9	41.7	37.6	10.7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6.3	25.0	52.1	16.7	$\chi^2=18.45$ P=0.103		
	80~119만원	9.5	37.7	36.6	16.2			
	120~199만원	8.8	41.7	38.1	11.3			
	200~299만원	11.2	39.2	37.6	12.0			
	300만원 이상	9.3	37.8	40.9	12.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0.3	36.8	39.4	13.4	$\chi^2=11.80$ P=0.462		
	경 상	7.8	38.4	40.9	12.9			
	전 라	9.0	47.2	32.6	11.2			
	충 청	11.6	34.7	41.5	12.2			
	강 원	7.9	46.0	33.3	12.7			
전 체		9.5	38.7	39.0	12.9	N=1,500		

<그림 2-8> 김정일 정권의 개방 전망



로 나아갈 것이다」를 유사한 평가항목이라고 볼 때 응답비율은 각각 4.7%와 8.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4년도 여론조사의 「매우 낮다」와 1995년도 여론조사의 「개방이 후퇴할 것이다」를 유사한 평가항목으로 볼 때 응답비율은 각각 15.0%와 19.7%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수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개방전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가구소득에 따른 편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2-8> 참조).

<표 2-8> 김정일 정권의 개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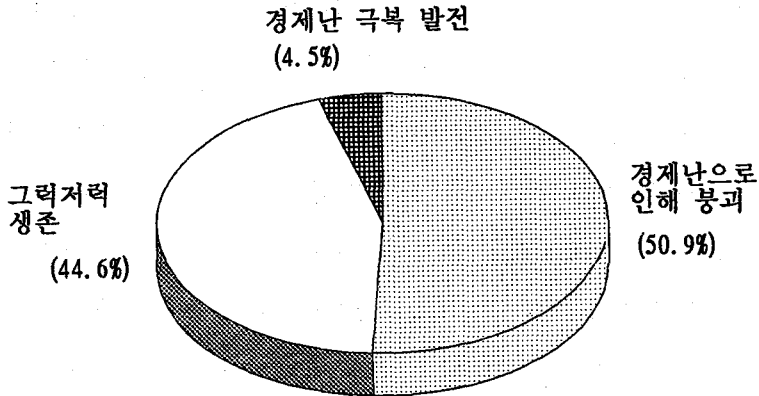
변 수 \ 항 목		전면적인 개 방	소극적인 개 방	개 방 후 퇴	유의도
성 별	남 자	9.0	74.1	16.9	$\chi^2=7.62$ P=0.022
	여 자	8.1	69.4	22.5	
연 령	20대	8.6	76.6	14.8	$\chi^2=41.73$ P=0.000
	30대	12.5	72.1	15.4	
	40대	5.7	71.2	23.1	
	50대	6.5	66.7	26.9	
	60세 이상	3.6	62.5	33.9	
학 력	중졸 이하	6.5	66.4	27.2	$\chi^2=23.19$ P=0.000
	고졸	8.2	71.5	20.4	
	대재 이상	10.3	75.5	14.1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8.3	74.0	17.7	$\chi^2=10.03$ P=0.263
	80~119만원	7.4	67.6	25.0	
	120~199만원	9.4	70.8	19.8	
	200~299만원	9.6	73.3	17.1	
	300만원 이상	6.2	75.6	18.2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8.3	71.6	20.1	$\chi^2=8.59$ P=0.378
	경 상	8.5	74.5	17.0	
	전 라	9.6	70.2	20.2	
	충 청	8.8	63.9	27.2	
	강 원	7.9	76.2	15.9	
전 체		8.5	71.7	19.7	N=1,500

9. 북한의 장래

북한의 장래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의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다」고 대답한 사람이 50.9%인 반면, 「그럭저럭 생존해 나갈 것이다」와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44.6%와 4.5%로 북한의 붕괴와 생존에 대한 평가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9> 참조). 그러나 북한이 발전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북한의 장래를 어두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의 경우 56.7%, 여자는 45.2%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다른지역에 비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소득에 따른 북한의 장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9> 참조).

<그림 2-9> 북한의 장래



10. 남북한의 분야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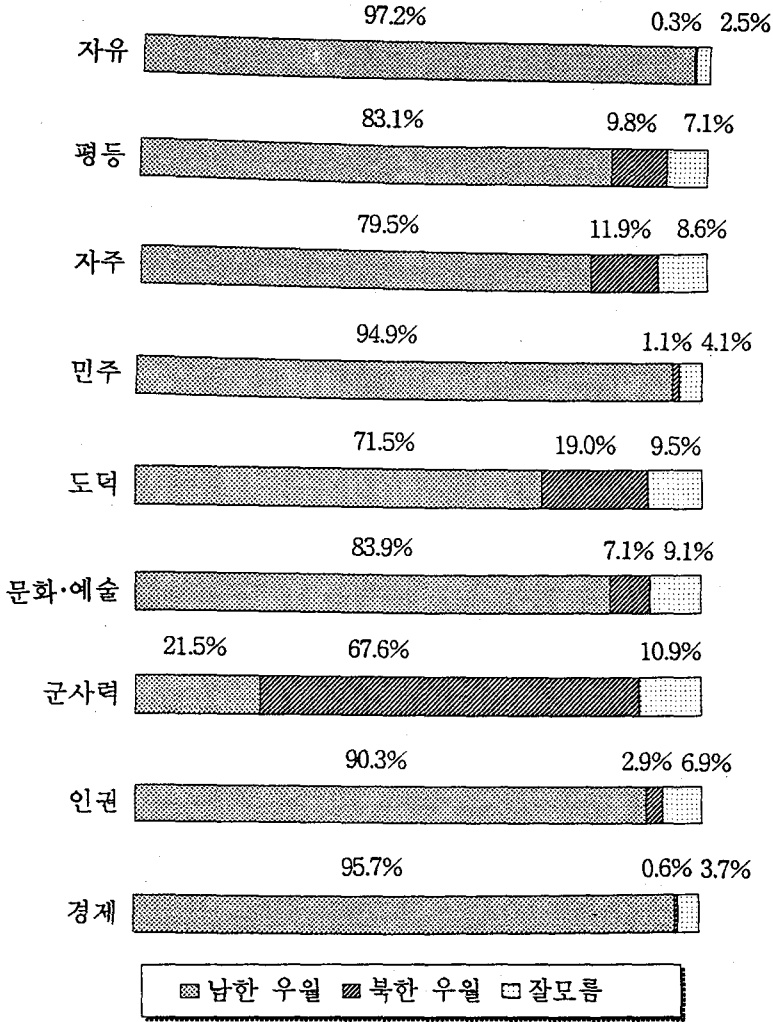
남북한의 분야별 장단점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수렴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남북한의 비교·평가와 관련하여 「자유」, 「평등」, 「자주」, 「민주」, 「도덕」, 「문화·예술」, 「군사력」, 「인권」, 「경제」의 9개 부문에 대해 “귀하는 남북한 중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 결과 군사력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남한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이 북한보다 가장 우월한

<표 2-9> 북한의 장래

변 수		항 목	경제난으로 인해 붕괴	그럭저럭 생 존	경제난 극복 발전	유의도
성 별	남 자		56.7	37.0	6.3	$\chi^2=40.10$ P=0.000
	여 자		45.2	52.1	2.7	
연 령	20대		56.4	40.2	3.4	$\chi^2=15.84$ P=0.045
	30대		51.4	44.0	4.6	
	40대		46.2	48.1	5.7	
	50대		48.1	48.1	3.7	
	60세 이상		42.9	46.4	10.7	
학 력	중졸 이하		41.4	54.0	4.6	$\chi^2=16.97$ P=0.002
	고졸		52.2	43.4	4.5	
	대재 이상		55.5	40.2	4.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37.5	59.4	3.1	$\chi^2=13.37$ P=0.100
	80~119만원		47.2	47.5	5.3	
	120~199만원		54.4	41.3	4.2	
	200~299만원		51.2	44.5	4.3	
	300만원 이상		52.9	42.2	4.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54.1	41.8	4.1	$\chi^2=18.58$ P=0.017
	경 상		45.1	51.3	3.7	
	전 라		47.8	45.5	6.7	
	충 청		53.7	42.2	4.1	
	강 원		60.3	31.7	7.9	
전 체			50.9	44.6	4.5	N=1,500

<그림 2-10> 남북한 분야별 비교



것으로 평가된 것은 자유(97.2%)이며, 그 다음이 경제(95.7%), 민주(94.9%), 인권(90.3%), 문화·예술(83.9%), 평등(83.1%), 자

주(79.5%), 도덕(71.5%)의 순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2-10> 참조).

유일하게 북한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 군사력의 경우 북한의 우위로 응답한 사람은 67.6%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한이 우세하다는 응답자는 21.5%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10.9%를 차지하였다. 1994년도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이 군사력에서 우월(매우 및 다소 우월)하다는 응답이 76.0%, 북한이 열세에 있다는 응답이 10.3%, 남북한의 군사력이 대등하다는 응답이 13.8%였다. 비록 군사력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1994년도와 비교해 볼 때 1995년도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우월 정도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완전한 우위를 자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우월성에 대한 평가 중 자유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는 등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에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가 높게 평가된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민주화가 정착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자주, 평등과 같은 부문에서조차도 남한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표 2-10A~10I 참조).

<표 2-10A> 남북한 분야별 비교: 자유

변 수		항 목		잘 모름	유의도
		남한 우월	북한 우월		
성 별	남 자	97.6	0.3	2.1	$\chi^2=0.91$ P=0.635
	여 자	96.8	0.3	2.9	
연 령	20대	96.4	0.9	2.7	$\chi^2=11.61$ P=0.170
	30대	97.1	0.0	2.9	
	40대	97.3	0.0	2.7	
	50대	97.8	0.0	2.2	
	60세 이상	100.0	0.0	0.0	
학 력	중졸 이하	97.8	0.0	2.2	$\chi^2=8.28$ P=0.082
	고졸	97.5	0.0	2.5	
	대재 이상	96.4	0.8	2.8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97.9	0.0	2.1	$\chi^2=8.70$ P=0.368
	80~119만원	98.2	0.0	1.8	
	120~199만원	96.2	0.4	3.5	
	200~299만원	97.6	0.0	2.4	
	300만원 이상	97.3	0.9	1.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96.2	0.3	3.5	$\chi^2=22.50$ P=0.004
	경 상	98.6	0.0	1.4	
	전 라	98.3	0.6	1.1	
	충 청	99.3	0.0	0.7	
	강 원	90.5	1.6	7.9	
전 체		97.2	0.3	2.5	N=1,500

<표 2-10B> 남북한 분야별 비교: 평등

변 수		항 목		남한 우월	북한 우월	잘 모름	유의도
		남 자	여 자				
성 별	남 자	84.7	9.7	5.6	$\chi^2=5.22$ P=0.073		
	여 자	81.4	9.9	8.6			
연 령	20대	80.9	12.3	6.8	$\chi^2=20.84$ P=0.008		
	30대	79.3	11.8	8.9			
	40대	84.5	6.4	9.1			
	50대	88.3	7.4	4.3			
	60세 이상	91.1	5.4	3.6			
학 력	중졸 이하	86.7	7.7	5.6	$\chi^2=12.57$ P=0.014		
	고졸	84.1	8.2	7.7			
	대재 이상	79.3	13.3	7.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85.4	8.3	6.3	$\chi^2=13.34$ P=0.101		
	80~119만원	88.7	7.0	4.2			
	120~199만원	80.8	11.2	8.1			
	200~299만원	84.3	9.1	6.7			
	300만원 이상	78.2	12.0	9.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82.3	8.0	9.7	$\chi^2=30.55$ P=0.000		
	경 상	85.1	8.3	6.7			
	전 라	83.1	14.0	2.8			
	충 청	81.6	16.3	2.0			
	강 원	81.0	12.7	6.3			
전 체		83.1	9.8	7.1	N=1,500		

<표 2-10C> 남북한 분야별 비교: 자주

변 수		항 목	남한 우월	북한 우월	잘 모름	유의도
성 별	남 자		79.4	14.3	6.3	$\chi^2=16.80$ P=0.000
	여 자		79.7	9.4	10.9	
연 령	20대		75.7	14.8	9.5	$\chi^2=40.67$ P=0.000
	30대		74.8	16.6	8.7	
	40대		79.2	9.8	11.0	
	50대		89.2	4.9	5.9	
	60세 이상		91.1	3.6	5.4	
학 력	중졸 이하		84.0	7.1	9.0	$\chi^2=27.92$ P=0.000
	고졸		81.1	9.7	9.2	
	대재 이상		74.6	17.9	7.6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83.3	7.3	9.4	$\chi^2=21.01$ P=0.007
	80~119만원		86.3	6.0	7.7	
	120~199만원		76.5	13.5	10.0	
	200~299만원		79.5	14.4	6.1	
	300만원 이상		76.4	13.3	10.2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76.4	11.7	12.0	$\chi^2=39.84$ P=0.000
	경 상		82.1	9.7	8.3	
	전 라		83.1	12.9	3.9	
	충 청		87.1	12.2	0.7	
	강 원		68.3	25.4	6.3	
전 체			79.5	11.9	8.6	N=1,500

<표 2-10D> 남북한 분야별 비교: 민주

변 수		항 목	남한 우월	북한 우월	잘 모름	유의도
성 별	남 자		95.7	1.1	3.2	$\chi^2=2.75$ P=0.253
	여 자		94.0	1.1	4.9	
연 령	20대		94.1	1.8	4.1	$\chi^2=6.55$ P=0.585
	30대		95.2	0.7	4.1	
	40대		95.1	0.8	4.2	
	50대		94.8	0.6	4.6	
	60세 이상		98.2	1.8	0.0	
학 력	중졸 이하		94.8	0.9	4.3	$\chi^2=0.31$ P=0.989
	고졸		94.9	1.2	3.9	
	대재 이상		94.8	1.0	4.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92.7	1.0	6.3	$\chi^2=9.41$ P=0.309
	80~119만원		94.7	0.0	5.3	
	120~199만원		94.4	1.5	4.0	
	200~299만원		95.2	1.6	3.2	
	300만원 이상		96.4	0.4	3.1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92.9	1.2	5.9	$\chi^2=19.59$ P=0.012
	경 상		96.3	0.9	2.8	
	전 라		97.2	1.7	1.1	
	충 청		98.6	0.0	1.4	
	강 원		90.5	1.6	7.9	
전 체			94.9	1.1	4.1	N=1,500

<표 2-10E> 남북한 분야별 비교: 도덕

변 수		항 목		남한 우월	북한 우월	잘 모름	유의도
		남 자	여 자				
성 별	남 자	73.3	17.8	8.8	$\chi^2=2.52$ P=0.283		
	여 자	69.6	20.2	10.2			
연 령	20대	66.1	23.4	10.5	$\chi^2=36.21$ P=0.000		
	30대	67.1	23.1	9.9			
	40대	73.9	14.0	12.4			
	50대	79.9	12.7	7.4			
	60세 이상	85.7	14.3	0.0			
학 력	중졸 이하	77.8	14.8	7.4	$\chi^2=18.19$ P=0.001		
	고졸	73.0	17.1	10.0			
	대재 이상	65.4	24.3	10.3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80.2	13.5	6.3	$\chi^2=28.35$ P=0.000		
	80~119만원	80.6	10.2	9.2			
	120~199만원	68.5	20.4	11.2			
	200~299만원	69.3	22.9	7.7			
	300만원 이상	66.7	22.7	10.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70.5	17.0	12.6	$\chi^2=28.48$ P=0.000		
	경 상	72.9	19.1	8.0			
	전 라	74.7	19.7	5.6			
	충 청	72.8	25.2	2.0			
	강 원	60.3	23.8	15.9			
전 체		71.5	19.0	9.5	N=1,500		

<표 2-10F> 남북한 분야별 비교: 문화·예술

항 목		남한 우월	북한 우월	잘 모름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83.1	7.5	9.4	$\chi^2=0.67$ P=0.715
	여 자	84.6	6.6	8.8	
연 령	20대	82.3	7.3	10.5	$\chi^2=6.57$ P=0.584
	30대	84.4	7.2	8.4	
	40대	81.4	7.6	11.0	
	50대	87.7	5.9	6.5	
	60세 이상	82.1	8.9	8.9	
학 력	중졸 이하	86.4	7.4	6.2	$\chi^2=9.42$ P=0.051
	고졸	84.5	5.5	10.0	
	대제 이상	81.3	8.9	9.7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87.5	5.2	7.3	$\chi^2=7.49$ P=0.485
	80~119만원	87.3	4.9	7.7	
	120~199만원	81.5	7.9	10.6	
	200~299만원	82.7	8.5	8.8	
	300만원 이상	85.3	6.2	8.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81.7	6.9	11.4	$\chi^2=21.70$ P=0.006
	경 상	86.2	6.2	7.6	
	전 라	79.2	12.4	8.4	
	충 청	91.8	4.8	3.4	
	강 원	85.7	4.8	9.5	
전 체		83.9	7.1	9.1	N=1,500

<표 2-10G> 남북한 분야별 비교: 군사력

변 수 \ 항 목		남한 우월	북한 우월	잘 모름	유의도
성 별	남 자	19.6	72.0	8.4	$\chi^2=14.88$ P=0.001
	여 자	23.5	63.3	13.3	
연 령	20대	24.3	65.7	10.0	$\chi^2=10.25$ P=0.248
	30대	20.4	67.1	12.5	
	40대	17.4	70.5	12.1	
	50대	21.0	70.1	9.0	
	60세 이상	30.4	58.9	10.7	
학 력	중졸 이하	23.8	65.7	10.5	$\chi^2=3.19$ P=0.527
	고졸	19.5	69.4	11.1	
	대졸 이상	22.9	66.4	10.7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0.8	67.7	11.5	$\chi^2=6.26$ P=0.618
	80~119만원	20.1	69.0	10.9	
	120~199만원	19.2	68.5	12.3	
	200~299만원	24.0	66.7	9.3	
	300만원 이상	24.9	65.3	9.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4.2	62.3	13.4	$\chi^2=43.10$ P=0.000
	경 상	18.4	72.0	9.7	
	전 라	19.1	75.8	5.1	
	충 청	22.4	74.1	3.4	
	강 원	19.0	55.6	25.4	
전 체		21.5	67.6	10.9	N=1,500

<표 2-10A> 남북한 분야별 비교: 인권

변 수		항 목		남한 우월	북한 우월	잘 모름	유의도
		남 자	여 자				
성 별	남 자	91.7	2.8	5.5	$\chi^2=4.41$ P=0.110		
	여 자	88.9	2.9	8.2			
연 령	20대	90.2	3.9	5.9	$\chi^2=9.05$ P=0.338		
	30대	88.5	3.8	7.7			
	40대	90.9	1.1	8.0			
	50대	91.7	1.9	6.5			
	60세 이상	92.9	1.8	5.4			
학 력	중졸 이하	89.5	2.5	8.0	$\chi^2=2.01$ P=0.735		
	고졸	90.0	2.8	7.1			
	대재 이상	91.1	3.2	5.8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86.5	7.3	6.3	$\chi^2=10.29$ P=0.245		
	80~119만원	91.2	3.5	5.3			
	120~199만원	89.8	2.5	7.7			
	200~299만원	90.7	2.4	6.9			
	300만원 이상	91.1	1.8	7.1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87.0	3.5	9.5	$\chi^2=33.45$ P=0.000		
	경 상	93.6	0.7	5.7			
	전 라	89.9	5.6	4.5			
	충 청	97.3	2.0	0.7			
	강 원	87.3	4.8	7.9			
전 체		90.3	2.9	6.9	N=1,500		

<표 2-10> 남북한 분야별 비교: 경제

번 수		항 목		남한 우월	북한 우월	잘 모름	유의도
		남 자	여 자				
성 별	남 자	96.2	0.4	3.4	$\chi^2=1.60$ P=0.450		
	여 자	95.1	0.8	4.1			
연 령	20대	96.8	1.1	2.0	$\chi^2=10.77$ P=0.215		
	30대	95.0	0.5	4.6			
	40대	94.3	0.8	4.9			
	50대	95.7	0.0	4.3			
	60세 이상	98.2	0.0	1.8			
학 력	중졸 이하	94.8	0.3	4.9	$\chi^2=2.84$ P=0.584		
	고졸	95.7	0.6	3.7			
	대재 이상	96.2	0.8	3.0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94.8	1.0	4.2	$\chi^2=6.47$ P=0.595		
	80~119만원	95.8	0.7	3.5			
	120~199만원	94.8	0.4	4.8			
	200~299만원	95.5	0.8	3.7			
	300만원 이상	98.2	0.4	1.3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93.4	1.2	5.5	$\chi^2=26.95$ P=0.001		
	경 상	97.2	0.0	2.8			
	전 라	98.3	0.6	1.1			
	충 청	100.0	0.0	0.0			
	강 원	92.1	0.0	7.9			
전 체		95.7	0.6	3.7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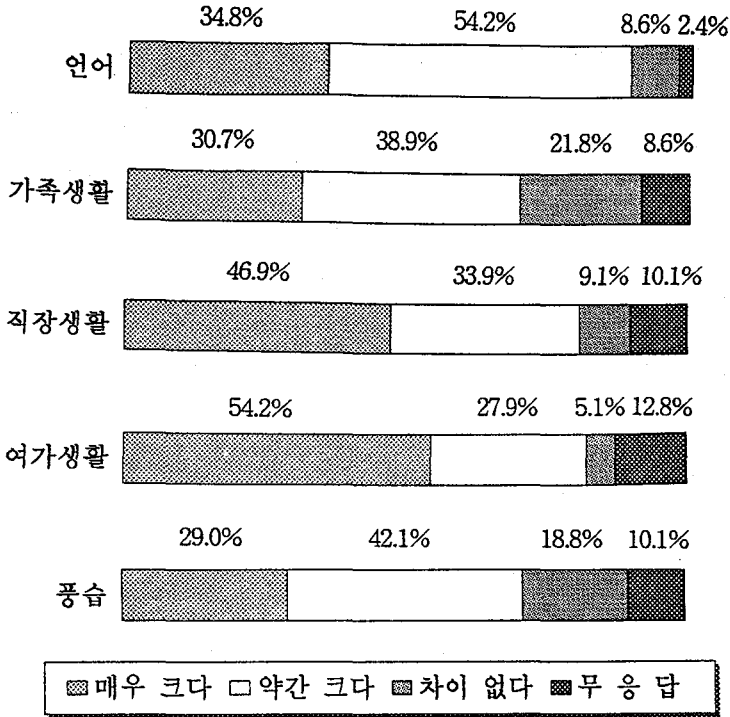
11.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

분단 반세기를 맞아 남북한의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질화 자체는 남북한 주민의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 「가족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풍습」 등의 항목별로 “귀하는 남북한간 이질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또한 이질화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귀하의 배우자가 북한출신이라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도 하였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 「매우 크다」 또는 「약간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70~90%로서 남북한간의 이질화는 모든 분야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89.0%), 여가생활(82.1%), 직장생활(80.8%), 풍습(71.1%), 가족생활(69.6%)의 순으로 이질화가 크게 진행되었다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다(<그림 2-11-1> 참조). 이질화 정도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가족생활과 풍습에서는 남북한간에 「차이없다」는 응답도 21.8%, 18.8%를 차지하였다. 배경변수 중 학력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가 모든 항목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표 2-11-1A~1E> 참조).

<그림 2-11-1> 남북한 이질화 정도



두번째 질문에서 배우자가 북한출신이라면 「사고방식」(67.6%)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고방식의 이질화가 남북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선 남한에서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습관」(18.9%)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북한 출신이라도 「문제없을 것이다」는 응답도 9.0%를 차지하였다(<그림 2-11-2> 참조).

<표 2-11-1A> 남북한 이질화 정도: 언어

변 수		항 목		매 우 크 다	약 간 크 다	차 이 없 다	무 응 답	유의도
성 별	남 자	32.8	57.4	8.2	1.6	$\chi^2=8.57$ P=0.036		
	여 자	36.7	51.1	9.0	3.2			
연 령	20대	30.7	60.5	7.5	1.4	$\chi^2=23.24$ P=0.026		
	30대	36.3	54.6	7.2	1.9			
	40대	36.7	51.1	8.0	4.2			
	50대	36.4	49.4	11.7	2.5			
	60세 이상	37.5	44.6	12.5	5.4			
학 력	중졸 이하	34.9	49.4	11.4	4.3	$\chi^2=13.33$ P=0.038		
	고졸	35.5	54.5	7.7	2.2			
	대재 이상	33.8	56.9	8.0	1.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38.5	40.6	12.5	8.3	$\chi^2=36.97$ P=0.000		
	80~119만원	29.9	54.2	12.3	3.5			
	120~199만원	36.0	56.0	6.9	1.2			
	200~299만원	33.9	57.3	7.2	1.6			
	300만원 이상	38.2	50.7	8.4	2.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8.6	50.7	8.1	2.7	$\chi^2=23.94$ P=0.021		
	경 상	29.7	61.6	6.4	2.3			
	전 라	36.0	49.4	12.4	2.2			
	충 청	29.3	55.8	12.9	2.0			
	강 원	39.7	50.8	7.9	1.6			
전 체		34.8	54.2	8.6	2.4	N=1,500		

<표 2-11-1B> 남북한 이질화 정도: 가족생활

항 목		매 우 크 다	약 간 크 다	차 이 없 다	무 응 답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30.4	38.2	24.7	6.7	$\chi^2=12.03$ P=0.007
	여 자	30.9	39.7	19.0	10.5	
연 령	20대	26.6	39.5	25.7	8.2	$\chi^2=17.83$ P=0.121
	30대	30.3	37.5	23.1	9.1	
	40대	29.5	39.8	22.0	8.7	
	50대	36.1	40.1	15.4	8.3	
	60세 이상	39.3	33.9	17.9	8.9	
학 력	중졸 이하	33.3	42.0	16.7	8.0	$\chi^2=21.79$ P=0.001
	고졸	32.1	37.4	20.1	10.4	
	대재 이상	27.0	39.0	27.4	6.6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35.4	34.4	19.8	10.4	$\chi^2=24.87$ P=0.015
	80~119만원	28.2	43.3	19.0	9.5	
	120~199만원	28.1	40.2	21.3	10.4	
	200~299만원	30.4	41.1	22.1	6.4	
	300만원 이상	38.2	28.9	26.7	6.2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0.1	36.8	23.8	9.3	$\chi^2=16.06$ P=0.188
	경 상	27.1	43.2	21.4	8.3	
	전 라	35.4	38.8	16.9	9.0	
	충 청	35.4	40.1	19.7	4.8	
	강 원	36.5	30.2	22.2	11.1	
전 체		30.7	38.9	21.8	8.6	N=1,500

<표 2-11-1C> 남북한 이질화 정도: 직장생활

항 목		매 우 크 다	약 간 크 다	차 이 없 다	무 응 답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47.1	34.0	9.0	9.9	$\chi^2=0.09$ P=0.993
	여 자	46.8	33.7	9.3	10.2	
연 령	20대	44.1	35.2	9.5	11.1	$\chi^2=9.92$ P=0.623
	30대	51.2	30.8	9.4	8.7	
	40대	48.9	31.8	9.1	10.2	
	50대	42.9	37.3	9.0	10.8	
	60세 이상	51.8	35.7	5.4	7.1	
학 력	중졸 이하	40.7	41.4	9.0	9.0	$\chi^2=15.20$ P=0.019
	고졸	49.8	30.9	8.0	11.3	
	대재 이상	47.1	33.0	10.7	9.1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49.0	29.2	10.4	11.5	$\chi^2=22.41$ P=0.033
	80~119만원	41.2	39.4	9.2	10.2	
	120~199만원	44.8	32.7	10.6	11.9	
	200~299만원	48.5	35.5	6.4	9.6	
	300만원 이상	55.6	28.9	9.8	5.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47.4	31.5	9.3	11.8	$\chi^2=11.56$ P=0.482
	경 상	43.9	37.9	9.2	9.0	
	전 라	53.4	31.5	7.9	7.3	
	충 청	44.9	36.7	8.8	9.5	
	강 원	49.2	31.7	11.1	7.9	
전 체		46.9	33.9	9.1	10.1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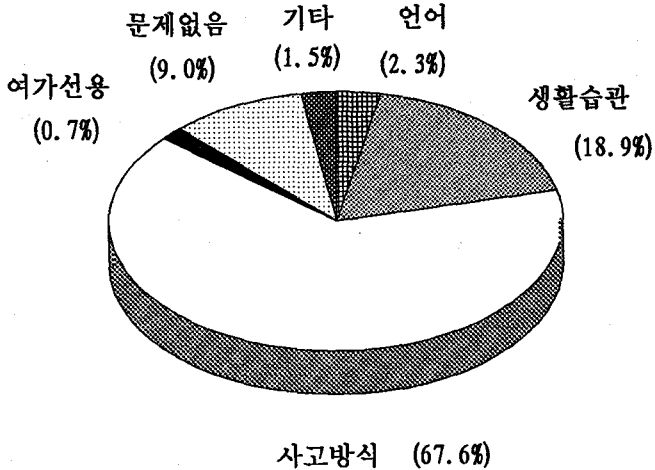
<표 2-11-1D> 남북한 이질화 정도: 여가생활

변수 \ 항목		매우 크다	약간 크다	차이 없다	무응답	유의도
성별	남자	52.9	29.6	4.4	13.0	$\chi^2=3.58$ P=0.311
	여자	55.4	26.1	5.8	12.6	
연령	20대	53.9	23.9	6.6	15.7	$\chi^2=20.06$ P=0.066
	30대	55.5	27.6	3.1	13.7	
	40대	55.3	29.9	3.8	11.0	
	50대	53.1	30.6	6.8	9.6	
	60세 이상	48.2	35.7	5.4	10.7	
학력	중졸 이하	47.5	34.6	7.7	10.2	$\chi^2=18.50$ P=0.005
	고졸	55.0	26.4	4.5	14.1	
	대재 이상	57.5	25.4	4.4	12.7	
가구소득	79만원 이하	53.1	25.0	9.4	12.5	$\chi^2=12.84$ P=0.381
	80~119만원	51.8	30.6	5.6	12.0	
	120~199만원	51.3	29.6	4.2	14.8	
	200~299만원	57.3	26.1	4.8	11.7	
	300만원 이상	59.1	24.4	5.3	11.1	
거주지역	서울/경기	54.4	25.4	5.8	14.5	$\chi^2=32.24$ P=0.001
	경상	46.7	35.2	4.6	13.6	
	전라	62.9	20.8	5.6	10.7	
	충청	59.2	28.6	4.1	8.2	
	강원	68.3	22.2	3.2	6.3	
전체		54.2	27.9	5.1	12.8	N=1,500

<표 2-11-1E> 남북한 이질화 정도: 풍습

항 목		매 우 크 다	약 간 크 다	차 이 없 다	무 응 답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27.3	42.8	19.7	10.2	$\chi^2=2.21$ P=0.530
	여 자	30.6	41.5	17.9	9.9	
연 령	20대	26.1	44.8	20.2	8.9	$\chi^2=16.09$ P=0.187
	30대	28.6	41.8	19.5	10.1	
	40대	28.4	36.7	21.6	13.3	
	50대	32.4	43.2	14.8	9.6	
	60세 이상	37.5	42.9	12.5	7.1	
학 력	중졸 이하	31.2	42.0	17.0	9.9	$\chi^2=17.21$ P=0.009
	고졸	31.2	39.1	17.7	12.0	
	대재 이상	24.7	46.3	21.5	7.6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6.0	38.5	21.9	13.5	$\chi^2=15.18$ P=0.232
	80~119만원	28.2	45.1	19.4	7.4	
	120~199만원	27.1	41.2	19.8	11.9	
	200~299만원	33.1	40.5	15.7	10.7	
	300만원 이상	28.9	44.9	19.6	6.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0.9	39.6	18.8	10.8	$\chi^2=25.73$ P=0.012
	경 상	26.2	49.0	15.4	9.4	
	전 라	32.0	30.9	24.7	12.4	
	충 청	25.2	46.9	21.8	6.1	
	강 원	28.6	42.9	19.0	9.5	
전 체		29.0	42.1	18.8	10.1	N=1,500

<그림 2-11-2> 북한출신 배우자의 문제점



한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고방식의 차이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20대의 72.5%가 사고방식의 차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데 비하여 60세 이상은 51.8%가 같은 대답을 하였다. 중졸 이하는 56.2%, 고졸은 68.8%, 대재 이상은 73.4%가 사고방식의 차이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즉 연령은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북한출신 배우자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표 2-11-2> 참조).

<표 2-11-2> 북한출신 배우자의 문제점

변 수		항 목							유의도
		언 어	생활 습관	사고 방식	여가 선용	문제 없음	기 타		
성 별	남 자	2.0	18.9	65.4	0.5	11.7	1.5	$\chi^2=13.78$ P=0.017	
	여 자	2.7	19.0	69.8	0.8	6.4	1.5		
연 령	20대	3.0	14.8	72.5	1.4	8.2	0.2	$\chi^2=59.79$ P=0.000	
	30대	1.7	19.0	70.7	0.2	6.5	1.9		
	40대	0.8	20.5	67.0	1.1	8.7	1.9		
	50대	2.8	22.5	60.2	0.0	13.3	1.2		
	60세 이상	7.1	23.2	51.8	0.0	10.7	7.1		
학 력	중졸 이하	3.7	25.3	56.2	0.6	12.7	1.5	$\chi^2=33.42$ P=0.000	
	고졸	2.4	18.7	68.8	0.6	7.6	1.9		
	대재 이상	1.4	15.1	73.4	0.8	8.5	0.8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1	29.2	61.5	0.0	5.2	2.1	$\chi^2=25.20$ P=0.194	
	80~119만원	3.2	23.2	62.3	1.1	9.2	1.1		
	120~199만원	2.1	17.3	69.0	0.8	10.0	0.8		
	200~299만원	2.4	17.9	68.3	0.3	9.3	1.9		
	300만원 이상	1.8	14.7	72.4	0.9	7.6	2.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0	18.5	65.3	0.7	10.2	2.4	$\chi^2=29.59$ P=0.077	
	경 상	2.3	21.1	69.0	0.5	6.2	0.9		
	전 라	1.7	15.2	71.9	0.6	9.6	1.1		
	충 청	1.4	22.4	62.6	1.4	12.2	0.0		
	강 원	0.0	11.1	82.5	0.0	6.3	0.0		
전 체		2.3	18.9	67.6	0.7	9.0	1.5	N=1,500	

제Ⅲ장 통일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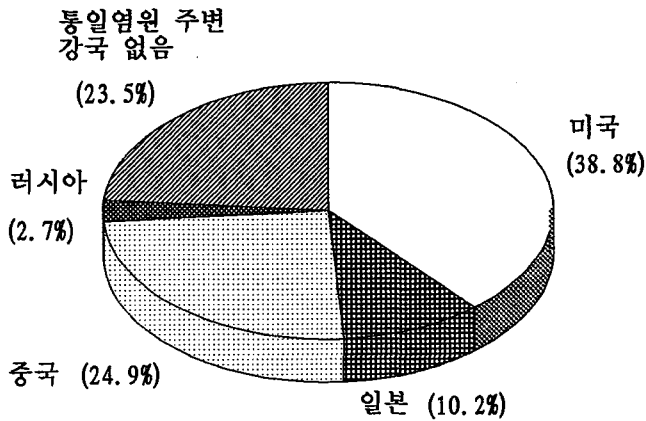
1. 통일외교의 대상국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통일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분단이 냉전의 산물로서 주변국가들의 참여한 이해 다툼의 결과에서 비롯되었다면, 통일도 주변국가들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통일외교는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귀하는 한반도의 통일외교에 가장 주요한 주변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통일외교에 가장 주요한 주변국으로는 「미국」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24.9%), 「일본」(10.2%), 「러시아」(2.7%)의 순이었으나,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 없음」에 대한 응답도 23.5%나 되었다(<그림 3-1> 참조). 따라서 국민들은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미국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자는 45.9%, 남자는 31.6%가 미국을 통일외교에 가장 주요한 주변국이라고 응답하였다. 남자의 경우 중국을 통

<그림 3-1> 통일외교의 대상국



일외교에서 가장 주요한 국가로 보는 비율이 32.4%로 오히려 미국보다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미국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20대는 통일을 바라는 주변국가가 없다는 대답(31.8%)이 미국을 중시하는 대답(33.2%)과 엇비슷하였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자(중졸 이하 50.3%)가 미국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고학력자(대재 이상)는 미국을 중시하는 대답(30.6%)과 통일을 바라는 주변국가가 없다는 대답(29.6%)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편 저소득층(79만원 이하 및 80~119만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표 3-1> 참조).

<표 3-1> 통일외교의 대상국

항 목 변 수		미 국	일 본	중 국	러시아	통일염원 주변강국 없음	유의도
성 별	남 자	31.6	9.5	32.4	2.7	23.7	$\chi^2=54.58$ P=0.000
	여 자	45.9	10.9	17.4	2.7	23.2	
연 령	20대	33.2	12.0	20.5	2.5	31.8	$\chi^2=59.89$ P=0.000
	30대	34.9	9.1	28.4	3.6	24.0	
	40대	37.5	10.6	27.7	2.7	21.6	
	50대	49.1	9.0	25.3	2.2	14.5	
	60세 이상	58.9	8.9	17.9	0.0	14.3	
학 력	중졸 이하	50.3	9.0	20.1	3.7	17.0	$\chi^2=41.85$ P=0.000
	고졸	39.4	9.8	26.2	2.7	22.0	
	대재 이상	30.6	11.5	26.2	2.0	29.6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57.3	5.2	16.7	5.2	15.6	$\chi^2=45.33$ P=0.000
	80~119만원	46.5	7.7	21.5	4.2	20.1	
	120~199만원	36.9	10.6	26.9	2.3	23.3	
	200~299만원	31.5	12.3	26.4	2.7	27.2	
	300만원 이상	37.8	11.1	25.3	0.4	25.3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8.7	10.5	24.5	2.5	23.8	$\chi^2=13.49$ P=0.637
	경 상	36.1	10.1	27.1	2.5	24.1	
	전 라	47.2	9.0	21.3	2.8	19.7	
	충 청	40.8	11.6	21.8	4.1	21.8	
	강 원	30.2	7.9	30.2	1.6	30.2	
전 체		38.8	10.2	24.9	2.7	23.5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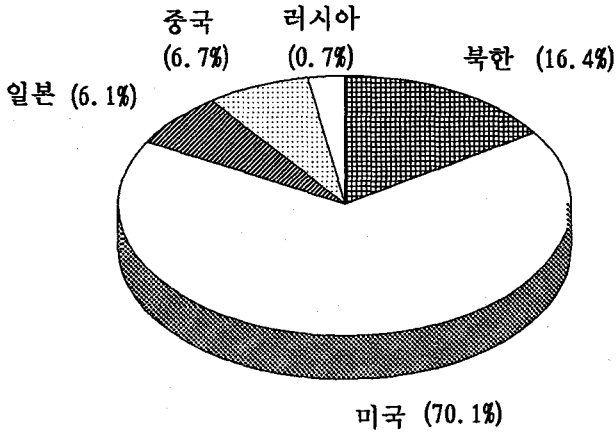
2. 한국과 가까운 나라

통일외교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지만 국민들이 주변국가에 대한 감정에 따라 구체적인 외교 전술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감정이 비판적이라면 외교과정에서도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다음 국가 중 한국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다수인 70.1%가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대답하였고, 다음으로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16.4%였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6.7%, 6.1%를 차지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러시아는 0.7%에 불과하여 친밀도에 있어 가장 뒤떨어지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2> 참조).

앞의 통일외교에 가장 주요한 주변국가를 묻는 질문과 관련시켜 본다면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동시에 통일에 대한 영향력도 미국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통일에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친밀도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 한국이 가깝게 느끼는 나라



배경변수와 관련하여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친밀도를 표시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3-2> 참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친밀도를 표출한 비율은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들이 28.0%로 친인척이 없는 경우(15.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한국이 가깝게 느끼는 나라

변 수		항 목					유의도
		북 한	미 국	일 본	중 국	러시아	
성 별	남 자	17.2	69.2	6.0	6.8	0.8	$\chi^2=0.88$ P=0.927
	여 자	15.6	71.0	6.2	6.5	0.7	
연 령	20대	20.7	65.7	6.8	5.5	1.4	$\chi^2=42.92$ P=0.000
	30대	20.7	65.4	5.0	7.9	1.0	
	40대	11.4	75.8	6.4	6.1	0.4	
	50대	9.6	75.6	7.4	7.4	0.0	
	60세 이상	14.3	80.4	0.0	5.4	0.0	
학 력	중졸 이하	10.5	75.0	7.7	6.8	0.0	$\chi^2=17.32$ P=0.027
	고졸	17.7	69.5	6.1	5.8	0.9	
	대재 이상	18.5	67.6	5.2	7.8	1.0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2.5	80.2	5.2	2.1	0.0	$\chi^2=27.72$ P=0.034
	80~119만원	10.9	76.4	6.7	4.6	1.4	
	120~199만원	18.7	66.9	6.9	7.3	0.2	
	200~299만원	18.7	66.9	5.3	7.7	1.3	
	300만원 이상	16.0	70.2	5.3	8.0	0.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9.6	67.8	5.6	5.8	1.2	$\chi^2=29.91$ P=0.018
	경 상	11.5	73.1	7.8	6.9	0.7	
	전 라	16.3	67.4	6.7	9.6	0.0	
	충 청	13.6	73.5	4.1	8.8	0.0	
	강 원	22.2	73.0	3.2	1.6	0.0	
전 체		16.4	70.1	6.1	6.7	0.7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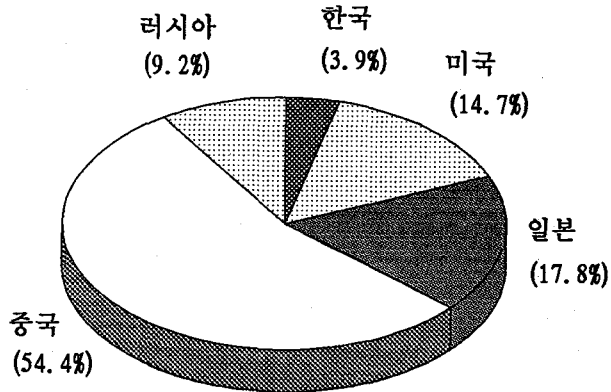
3. 북한과 가까운 나라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개방 확대를 도외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은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주변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를 중시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다음 국가 중 북한이 가장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의 54.4%가 「중국」을 북한이 가장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나라로 꼽았고, 「일본」을 중시한다는 응답자는 17.8%, 「미국」을 선택한 비율은 14.7%, 「러시아」를 선택한 사람은 9.2%였으며, 「한국」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향한다고 본 응답 비율은 3.9%에 불과하였다(<그림 3-3> 참조). 남자의 경우 북한이 일본보다는 미국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표 3-3> 참조).

중국을 선택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던 것은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을 선택한 사람들은 북한이 대일·대미 수

<그림 3-3> 북한이 가까이 지내려는 나라



교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가깝게 지내려는 나라로 한국이 가장 적게 꼽힌 이유는 국민들이 여전히 북한이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고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 민간기업과의 경협에는 적극적이며, 현재 남한이 북한의 주요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3> 북한이 가까이 지내려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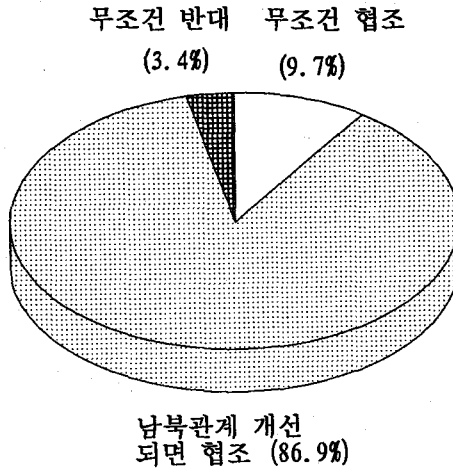
변 수		항 목					유의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 별	남 자	4.4	16.2	13.4	59.0	7.0	$\chi^2=33.20$ P=0.000
	여 자	3.4	13.1	22.1	49.9	11.4	
연 령	20대	5.0	11.6	21.6	51.1	10.7	$\chi^2=23.02$ P=0.113
	30대	4.6	17.5	16.1	52.6	9.1	
	40대	2.7	15.2	16.7	56.8	8.7	
	50대	2.5	13.9	17.0	58.0	8.6	
	60세 이상	5.4	19.6	10.7	60.7	3.6	
학 력	중졸 이하	3.1	10.5	18.2	58.3	9.9	$\chi^2=14.31$ P=0.074
	고졸	3.3	14.9	19.5	53.0	9.4	
	대재 이상	5.4	17.1	15.3	53.7	8.5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4.2	12.5	22.9	50.0	10.4	$\chi^2=16.47$ P=0.421
	80~119만원	4.6	10.9	17.6	53.5	13.4	
	120~199만원	3.3	16.7	16.0	55.8	8.3	
	200~299만원	4.0	15.5	18.4	54.7	7.5	
	300만원 이상	4.4	14.2	19.1	53.8	8.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1	13.9	17.0	57.8	8.3	$\chi^2=23.42$ P=0.103
	경 상	4.4	15.4	20.5	50.3	9.4	
	전 라	4.5	11.8	15.7	58.4	9.6	
	충 청	4.8	14.3	19.7	48.3	12.9	
	강 원	6.3	27.0	9.5	49.2	7.9	
전 체		3.9	14.7	17.8	54.4	9.2	N=1,500

4. 북한의 대일, 대미 관계개선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보다는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증진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이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중국 및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듯이 일본과 미국이 북한을 인정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이 일본 및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우리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86.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무조건 협조하여야 한다」는 9.7%, 「무조건 반대하여야 한다」는 3.4%에 불과하였다(<그림 3-4> 참조).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협조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와의 마찰이 일어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국민 여론은 정부의 소신있는 대외정책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림 3-4> 북일·북미 관계개선에 대한 협조



한편 정부가 협조(무조건 협조와 조건부 협조)해야 하는지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지의 두 경우로 나누어 볼 때,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무조건 반대의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0대에서는 1.1%만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8.9%가 반대하였다. 또한 한국의 협조를 반대하는 비율이 대재 이상에서는 1.0% 뿐이었으나 중졸 이하에서는 8.6%를 차지하였다(<표 3-4> 참조).

<표 3-4> 복일·복미 관계개선에 대한 협조

항 목		무조건 협 조	남북관계 개선되면 협조	무조건 반 대	유의도
성 별	남 자	11.0	86.3	2.7	$\chi^2=5.02$ P=0.081
	여 자	8.4	87.5	4.1	
연 령	20대	9.5	89.3	1.1	$\chi^2=27.69$ P=0.001
	30대	11.1	86.3	2.6	
	40대	9.1	87.5	3.4	
	50대	7.4	86.1	6.5	
	60세 이상	16.1	75.0	8.9	
학 력	중졸 이하	12.0	79.3	8.6	$\chi^2=41.03$ P=0.000
	고졸	8.9	88.4	2.7	
	대재 이상	9.1	89.9	1.0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4.2	85.4	10.4	$\chi^2=33.89$ P=0.000
	80~119만원	10.2	84.5	5.3	
	120~199만원	8.7	88.3	3.1	
	200~299만원	13.3	85.6	1.1	
	300만원 이상	7.6	89.8	2.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9.0	88.6	2.4	$\chi^2=18.09$ P=0.021
	경 상	9.9	86.9	3.2	
	전 라	9.6	85.4	5.1	
	충 청	10.2	81.6	8.2	
	강 원	14.3	85.7	0.0	
전 체		9.7	86.9	3.4	N=1,500

5. UN 안보리 진출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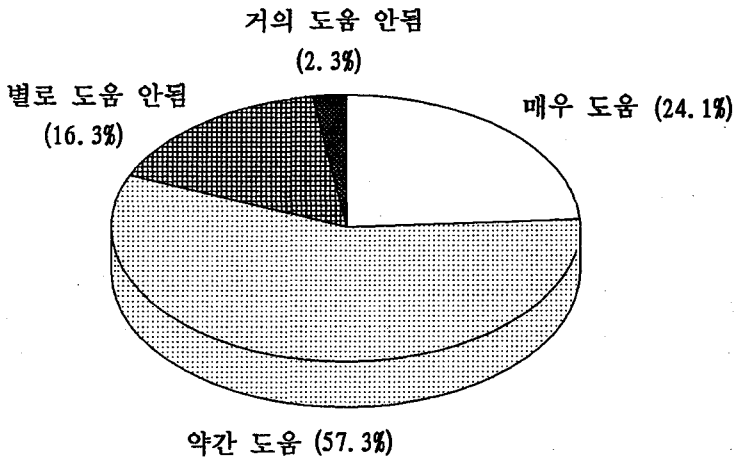
한국은 국력이 신장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무대를 넓혀왔다. 특히 UN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1995.11.8)하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위와 위상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한국의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57.3%)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24.1%)는 긍정적인 반응은 81.4%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6.3%)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2.3%)는 부정적인 반응은 18.6%로 나타났다(<그림 3-5> 참조). 즉 국민들은 한국의 UN 안보리 진출과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가 통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남북한 관계 전망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앞으로 2~3년내 남북한관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4.8%)와 「다소 진전될 것이다」

<그림 3-5> 유엔 진출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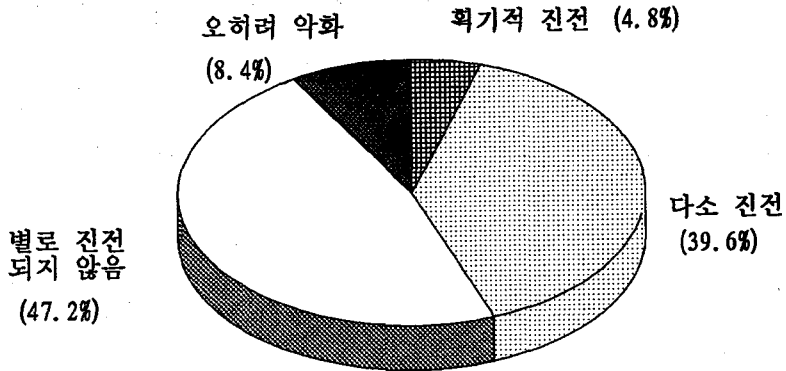
(39.6%) 등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4.4%인 반면,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47.2%)와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8.4%) 등 비관적인 응답이 55.6%로 나타났다(<그림 3-6> 참조).

따라서 향후 2~3년 동안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전망은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 탈냉전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1995년 여름 대북 쌀지원과정의 문제와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경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5> 유엔 진출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항 목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별로 도움 안됨	거의 도움 안됨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27.7	53.8	15.8	2.7	$\chi^2=12.63$ P=0.006
	여 자	20.4	60.9	16.7	2.0	
연 령	20대	25.0	56.8	15.2	3.0	$\chi^2=6.97$ P=0.859
	30대	24.3	58.4	14.7	2.6	
	40대	20.8	58.0	19.7	1.5	
	50대	25.0	55.9	17.3	1.9	
	60세 이상	25.0	58.9	14.3	1.8	
학 력	중졸 이하	18.5	61.1	18.2	2.2	$\chi^2=11.96$ P=0.063
	고졸	25.6	58.1	14.6	1.8	
	대재 이상	25.6	53.9	17.3	3.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2.9	63.5	8.3	5.2	$\chi^2=15.02$ P=0.240
	80~119만원	26.4	53.5	17.3	2.8	
	120~199만원	24.8	58.3	15.0	1.9	
	200~299만원	23.7	57.6	17.1	1.6	
	300만원 이상	20.4	56.9	20.0	2.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8.1	56.3	13.1	2.5	$\chi^2=29.47$ P=0.003
	경 상	19.5	60.2	18.2	2.1	
	전 라	27.5	51.1	19.7	1.7	
	충 청	17.0	63.3	18.4	1.4	
	강 원	19.0	52.4	22.2	6.3	
전 체		24.1	57.3	16.3	2.3	N=1,500

<그림 3-6> 남북한 관계 전망



배경변수별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단기적인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전망에서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전망에 대한 평가에서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3-6> 참조).

<표 3-6> 남북한 관계 전망

항 목		확기적 진 전	다 소 진 전	별로 진전되지 않음	오히려 악 화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5.2	42.4	43.6	8.8	$\chi^2=7.93$ P=0.048
	여 자	4.4	36.9	50.8	8.0	
연 령	20대	5.7	44.1	42.7	7.5	$\chi^2=13.24$ P=0.352
	30대	5.5	38.2	47.6	8.7	
	40대	3.4	39.0	47.0	10.6	
	50대	4.0	36.7	52.2	7.1	
	60세 이상	3.6	33.9	51.8	10.7	
학 력	중졸 이하	3.1	31.8	55.2	9.9	$\chi^2=19.01$ P=0.004
	고졸	5.1	40.7	45.0	9.2	
	대재 이상	5.6	43.1	44.9	6.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1	31.3	56.3	10.4	$\chi^2=15.33$ P=0.224
	80~119만원	6.0	35.6	47.9	10.6	
	120~199만원	4.6	39.4	47.1	8.8	
	200~299만원	4.8	44.5	45.1	5.6	
	300만원 이상	4.9	40.4	46.2	8.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7	39.9	48.6	8.9	$\chi^2=21.62$ P=0.042
	경 상	5.7	39.8	46.0	8.5	
	전 라	7.3	44.9	39.9	7.9	
	충 청	6.8	35.4	51.7	6.1	
	강 원	9.5	30.2	50.8	9.5	
전 체		4.8	39.6	47.2	8.4	N=1,500

제Ⅳ장 통일정책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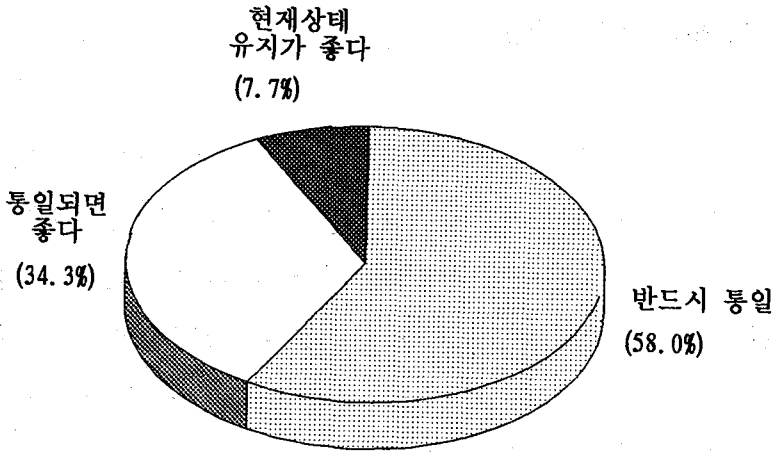
1. 통일에 대한 견해

국민들은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의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원이 1994년도 여론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91.6%나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으며, 여타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5년도 여론 조사에서는 “귀하는 남북한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체의 58.0%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도 34.3%나 되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자는 7.7%였다(<그림 4-1> 참조).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나,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을 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 통일에 대한 견해



이 집단은 통일을 선호하지만 통일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거나 통일의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일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진 집단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은 통일의 당위성을 무조건적으로 전제하고 통일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배경변수별로 응답 빈도의 순서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와 저학력층에서 현재 상태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연령별 차이를 보면, 20~40대에서 55% 내외인 반면, 50대와 60세 이

<표 4-1> 통일에 대한 견해

변 수		항 목		통일되면 좋다	현재상태 유지가 좋다	유의도
		반드시 통일				
성 별	남 자	64.6	30.3	5.1	$\chi^2=31.39$ P=0.000	
	여 자	51.5	38.2	10.3		
연 령	20대	55.2	38.6	6.1	$\chi^2=36.78$ P=0.000	
	30대	54.6	38.2	7.2		
	40대	54.9	37.9	7.2		
	50대	65.7	24.1	10.2		
	60세 이상	75.0	12.5	12.5		
학 력	중졸 이하	62.0	25.9	12.0	$\chi^2=22.28$ P=0.000	
	고졸	55.4	37.0	7.6		
	대재 이상	58.8	36.0	5.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65.6	21.9	12.5	$\chi^2=13.34$ P=0.101	
	80~119만원	60.9	30.3	8.8		
	120~199만원	57.1	36.2	6.7		
	200~299만원	57.1	35.5	7.5		
	300만원 이상	54.7	38.2	7.1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55.8	36.0	8.1	$\chi^2=12.53$ P=0.129	
	경 상	57.2	35.6	7.1		
	전 라	68.0	24.7	7.3		
	충 청	55.1	37.4	7.5		
	강 원	65.1	25.4	9.5		
전 체		58.0	34.3	7.7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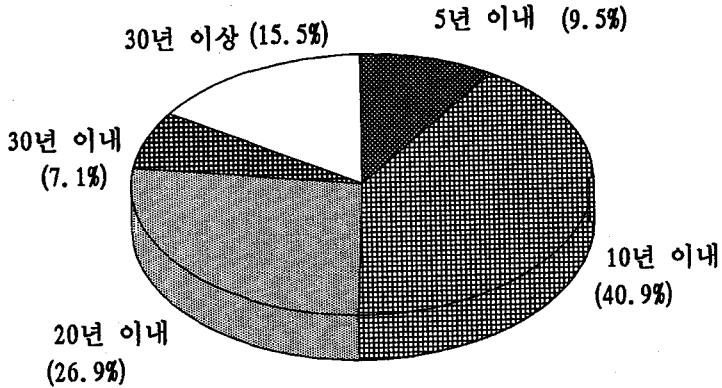
상은 각각 65.7%와 75.0%로 나타나 고령층이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통일을 선호하나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응답 비율은 20~40대에서 38% 내외인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24.1%와 12.5%에 불과하였다(<표 4-1> 참조).

2. 통일 예상시기

통일시기에 대한 국민들의 예상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5년 이내」(9.5%), 「10년 이내」(40.9%), 「20년 이내」(26.9%), 「30년 이내」(7.1%), 「30년 이상」(15.5%)으로 나타났다(<그림 4-2> 참조).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84.4%는 한 세대(3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사람도 과반수가 넘는다. 여자의 경우 3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0%를 차지하여 한 세대 이내에 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비율이 남자(12.1%)보다 높았다(<표 4-2> 참조).

1993년과 1994년도 여론조사에서는 10년 이내(누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45.1%와 73.8%였으며, 30년 이내(누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75.9%와 91.0%로

<그림 4-2> 통일 예상시기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 예상시기에 대한 전망이 1994년에는 1993년보다 낙관적이었으나 1995년에는 비관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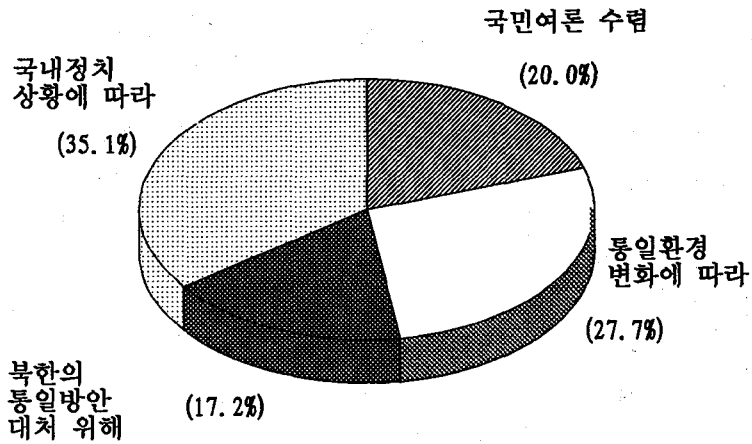
3. 통일정책 수립과정

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수립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방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표 4-2> 통일 예상시기

변 수		항 목					유의도
		5년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성 별	남 자	8.3	45.3	27.7	6.6	12.1	$\chi^2=22.02$ P=0.000
	여 자	10.7	36.5	26.1	7.7	19.0	
연 령	20대	11.6	36.6	28.2	8.2	15.5	$\chi^2=16.48$ P=0.420
	30대	8.4	43.3	24.5	6.7	17.1	
	40대	7.6	42.4	26.9	7.6	15.5	
	50대	8.6	41.0	29.0	6.2	15.1	
	60세 이상	16.1	48.2	23.2	5.4	7.1	
학 력	중졸 이하	11.1	38.0	24.1	7.7	19.1	$\chi^2=11.73$ P=0.164
	고졸	9.1	42.9	25.4	7.0	15.6	
	대재 이상	9.1	40.0	30.8	7.0	13.1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1.5	33.3	21.9	9.4	24.0	$\chi^2=19.60$ P=0.239
	80~119만원	9.9	40.5	27.8	4.2	17.6	
	120~199만원	9.6	41.7	28.3	7.5	12.9	
	200~299만원	8.8	42.7	25.3	9.1	14.1	
	300만원 이상	9.3	39.6	27.6	5.8	17.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9.5	39.4	26.4	7.2	17.4	$\chi^2=13.22$ P=0.657
	경 상	9.0	43.2	28.5	6.2	13.1	
	전 라	13.5	41.6	24.7	6.7	13.5	
	충 청	8.2	38.8	25.9	8.8	18.4	
	장 원	6.3	42.9	30.2	9.5	11.1	
전 체		9.5	40.9	26.9	7.1	15.5	N=1,500

<그림 4-3> 통일정책 수립과정



다」(35.1%),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다」(27.7%),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진다」(20.0%), 「북한의 통일방안(대남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다」(17.2%)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3> 참조).

통일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1994년도 여론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응답 순서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1994년의 응답도 「국내정치상황」(28.3%), 「통일환경의 변화」(23.6%), 「국민의 여론을 수렴」(20.9%),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처」(13.8%), 「모르겠다」(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통일정책 수립과정

항 목		국민여론 수렴	통일환경 변화에 따라	북한의 통일방안 대처 위해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18.6	29.5	16.9	35.0	$\chi^2=3.26$ P=0.353
	여 자	21.4	25.9	17.5	35.3	
연 령	20대	16.6	27.7	19.5	36.1	$\chi^2=38.06$ P=0.000
	30대	14.9	28.1	18.5	38.5	
	40대	20.5	32.6	13.6	33.3	
	50대	28.4	23.1	16.4	32.1	
	60세 이상	33.9	26.8	10.7	28.6	
학 력	중졸 이하	29.3	23.8	13.0	34.0	$\chi^2=39.88$ P=0.000
	고졸	20.7	30.0	16.8	32.5	
	대재 이상	13.1	27.0	20.5	39.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9.8	21.9	17.7	40.6	$\chi^2=16.58$ P=0.166
	80~119만원	26.1	27.5	16.2	30.3	
	120~199만원	18.5	28.7	18.1	34.8	
	200~299만원	20.8	28.8	15.7	34.7	
	300만원 이상	14.7	26.2	18.7	40.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8.8	28.4	19.1	33.8	$\chi^2=23.69$ P=0.224
	경 상	19.8	31.5	14.9	33.8	
	전 라	25.8	19.7	11.8	42.7	
	충 청	17.7	25.9	19.0	37.4	
	강 원	23.8	20.6	23.8	31.7	
전 체		20.0	27.7	17.2	35.1	N=1,500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부의 통일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았다(<표 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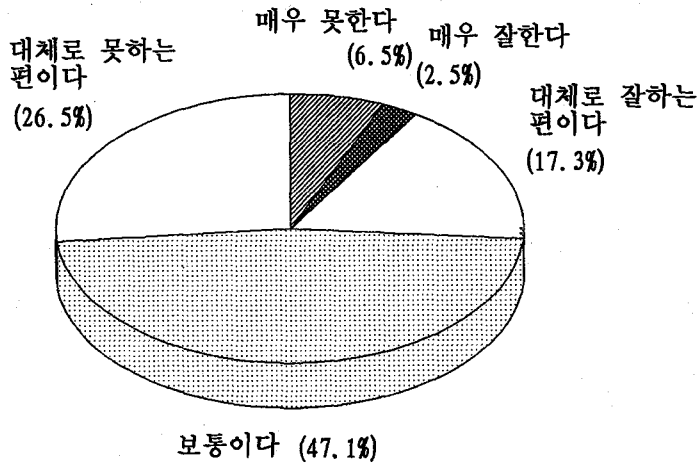
4.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듯이 국민들은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다소간 혼란스러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수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현 정부가 통일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정부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2.5%)와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이다」(17.3%), 「보통이다」(47.1%)고 보는 긍정적 평가는 66.9%인 반면, 「대체로 못하고 있는 편이다」(26.5%)와 「매우 못하고 있다」(6.5%)고 보는 부정적 평가는 33.0%이다(<그림 4-4> 참조).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대체로 또는 매우 못함)은 상대적으로 남자와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타지역에 비해 강원지역이 통일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표 4-4> 참조).

<그림 4-4>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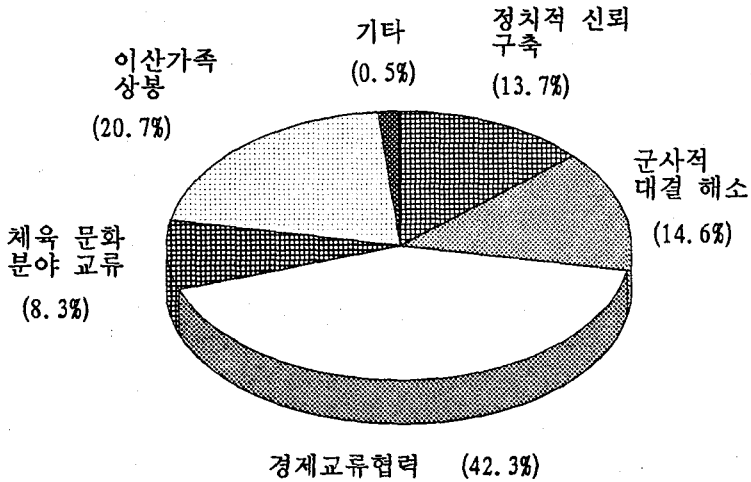
5. 남북관계 개선 우선 분야

남북관계는 냉전질서의 해체에 따라 한때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나 기본적으로는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과 남북관계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이러한 이중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인식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여 화해·협력에 바탕을 둔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의 한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표 4-4>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변 수		항 목					유의도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한다	
성 별	남 자	2.9	15.4	44.1	29.2	8.3	$\chi^2=18.16$ P=0.001
	여 자	2.1	19.2	50.0	23.9	4.8	
연 령	20대	1.6	15.0	49.5	24.3	9.5	$\chi^2=54.38$ P=0.000
	30대	1.0	14.7	45.9	31.0	7.5	
	40대	1.9	20.1	46.2	28.0	3.8	
	50대	5.6	20.4	45.7	25.0	3.4	
	60세 이상	7.1	25.0	48.2	12.5	7.1	
학 력	중졸 이하	4.0	23.8	45.4	24.1	2.8	$\chi^2=32.88$ P=0.000
	고졸	2.2	17.5	48.7	24.4	7.1	
	대재 이상	2.0	12.9	45.9	31.0	8.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8.3	20.8	40.6	20.8	9.4	$\chi^2=30.30$ P=0.017
	80~119만원	3.5	18.0	49.6	22.5	6.3	
	120~199만원	1.7	18.7	47.7	25.4	6.5	
	200~299만원	1.6	16.5	47.2	28.8	5.9	
	300만원 이상	2.2	13.3	44.9	32.9	6.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8	16.2	51.8	22.9	6.2	$\chi^2=48.19$ P=0.000
	경 상	2.1	20.0	47.4	23.2	7.4	
	전 라	4.5	19.1	35.4	34.8	6.2	
	충 청	0.7	16.3	44.2	34.0	4.8	
	강 원	1.6	7.9	33.3	47.6	9.5	
전 체		2.5	17.3	47.1	26.5	6.5	N=1,500

<그림 4-5> 남북관계 개선 우선 분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분야의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경제교류 및 협력」(42.3%), 「이산가족 상봉」(20.7%), 「군사적 대결 해소」(14.6%), 「정치적 신뢰구축」(13.7%), 「체육·문화분야의 교류」(8.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참조). 이러한 결과는 동일 질문에 대한 1994년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남북한 신뢰구축」(33.1%), 「경제교류·협력」(31.2%), 「이산가족 상봉」(18.5%), 「군사적 대결 해소」(11.9%), 「체육·문화교류」(5.0%)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편차

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에서 '경제교류 협력' 분야의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데에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긴장관계의 해소가 쉽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정치적 분야의 경제교류를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쌀지원 과정에서 인공기 게양사건, 쌀 수송선 억류사건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남북한 신뢰구축(1994년도 조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협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자, 40대 이하, 고졸 이상, 중산층 이상이 경제교류·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 평가하였다. 60대 이상은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사업으로 여기고 있다(44.6%). 그리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33.3%)와 79만원 이하의 저소득자(36.5%)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였다(<표 4-5> 참조).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21.2%)와 없는 경우(20.6%)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이는 현재 상당히 고령에 접어든 이북출신 월남인들과는 달리 그들의 2세·3세들은 이산가족이 아닌, 즉 북한에 친인척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분단의 고통과 비애를 느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표 4-5> 남북관계 개선 우선 분야

항 목 변 수		정치적	군사적	경제	체육	이산	기타	유의도
		신뢰 구축	대결 해소	교류 협력	문화분야 교류	가족 상봉		
성 별	남 자	12.7	14.2	46.0	9.4	17.0	0.7	$\chi^2=18.22$ P=0.003
	여 자	14.6	15.0	38.6	7.2	24.3	0.4	
연 령	20대	14.5	13.6	48.9	9.3	13.2	0.5	$\chi^2=61.65$ P=0.000
	30대	14.2	16.8	42.5	7.2	18.3	1.0	
	40대	14.0	14.8	42.8	6.1	22.0	0.4	
	50대	12.7	13.9	34.3	10.2	28.7	0.3	
	60세 이상	7.1	8.9	32.1	7.1	44.6	0.0	
학 력	중졸 이하	12.7	16.4	29.6	7.7	33.3	0.3	$\chi^2=54.12$ P=0.000
	고졸	12.6	15.5	45.6	8.6	16.9	0.7	
	대제 이상	15.7	12.3	45.9	8.2	17.5	0.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2.5	12.5	30.2	6.3	36.5	2.1	$\chi^2=38.87$ P=0.007
	80~119만원	13.7	16.2	38.7	9.5	21.5	0.4	
	120~199만원	11.2	16.2	42.3	8.3	21.3	0.8	
	200~299만원	16.3	11.7	46.7	7.5	17.9	0.0	
	300만원 이상	15.6	14.7	44.4	8.9	16.0	0.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4.3	12.0	45.3	7.4	20.1	0.9	$\chi^2=38.00$ P=0.009
	경 상	13.3	18.9	43.2	9.0	15.4	0.2	
	전 라	13.5	13.5	34.8	7.3	30.3	0.6	
	충 청	13.6	15.6	36.7	9.5	24.5	0.0	
	강 원	9.5	14.3	36.5	12.7	27.0	0.0	
전 체		13.7	14.6	42.3	8.3	20.7	0.5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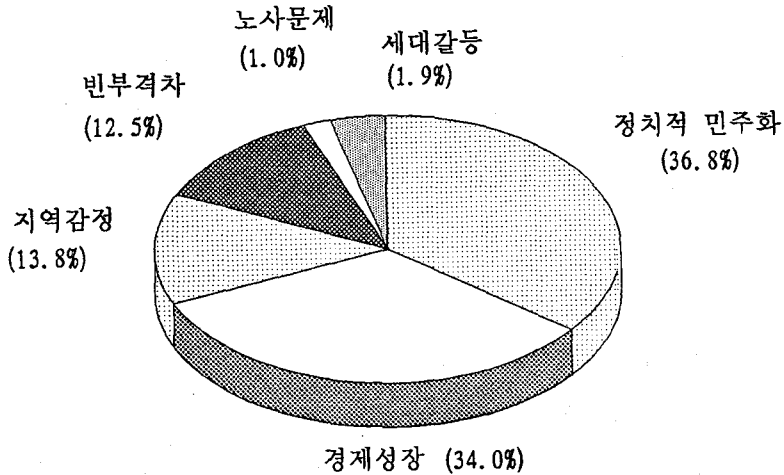
6. 통일기반 조성의 과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다음 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36.8%는 「정치적 민주화」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지적한 사람도 34.0%를 차지하였다. 「지역감정」과 「빈부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대답은 각각 13.8%와 12.5%를 차지하였으며, 「노사문제」(1.0%)와 「세대갈등」(1.9%)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4-6> 참조). 비록 최근 통일논의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문이 부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통일기반 조성의 핵심으로 사회 각분야에서의 민주화와 경제적인 발전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기반조성에 시급한 문제로 정치적 민주화를 특히 중요시 하는 연령층은 30대(44.2%)였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고학력일수록 정치적 민주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경제성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대답한 연령층은 40대와 50대였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표 4-6> 참조).

<그림 4-6> 통일기반 조성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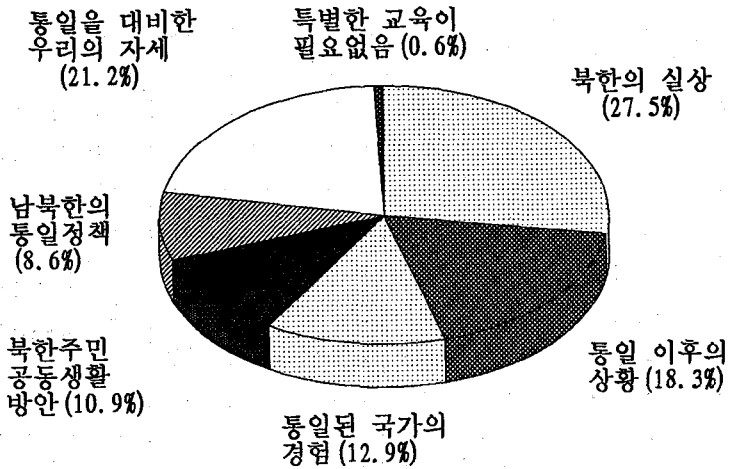
7. 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교육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독일의 통일과 통일후 유증을 목격하면서 통일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결과인 동시에 그 동안 통일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하는 통일에 대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4-6> 통일기반 조성의 과제

변 수		항 목	정치적	경제	지역	빈부	노사	세대	유의도
		민주화	성장	감정	격차	문제	갈등		
성 별	남 자		36.9	36.3	13.0	11.4	0.9	1.5	$\chi^2=5.86$ P=0.320
	여 자		36.7	31.7	14.6	13.7	1.1	2.3	
연 령	20대		39.3	32.3	13.2	12.0	0.9	2.3	$\chi^2=35.07$ P=0.020
	30대		44.2	29.6	12.0	11.5	1.2	1.4	
	40대		30.7	39.0	16.7	11.7	1.1	0.8	
	50대		29.0	38.6	13.6	14.8	0.9	3.1	
	60세 이상		35.7	30.4	19.6	14.3	0.0	0.0	
학 력	중졸 이하		29.9	35.8	17.0	13.9	1.9	1.5	$\chi^2=24.03$ P=0.008
	고졸		36.3	33.9	12.5	14.7	0.9	1.8	
	대재 이상		41.9	33.0	13.5	8.7	0.6	2.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32.3	22.9	15.6	24.0	1.0	4.2	$\chi^2=34.26$ P=0.024
	80~119만원		34.9	30.3	16.5	14.1	2.1	2.1	
	120~199만원		38.5	34.2	14.0	10.8	1.0	1.5	
	200~299만원		37.3	35.2	13.1	12.0	0.5	1.9	
	300만원 이상		36.4	40.9	10.2	10.7	0.4	1.3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40.6	31.2	14.3	11.1	0.9	1.9	$\chi^2=52.31$ P=0.000
	경 상		27.6	43.7	11.7	14.9	0.7	1.4	
	전 라		37.1	28.1	17.4	13.5	0.6	3.4	
	충 청		42.2	28.6	11.6	14.3	2.0	1.4	
	강 원		46.0	27.0	17.5	4.8	3.2	1.6	
전 체			36.8	34.0	13.8	12.5	1.0	1.9	N=1,500

<그림 4-7> 통일교육의 내용(1순위)



중요도를 구별하여 복수 응답을 허용한 이 질문에 대하여 1 순위 응답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북한의 실상」이 27.5%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자세」(21.2%), 「통일 이후의 상황」(18.3%), 「독일과 같이 통일된 국가의 경험」(12.9%), 「북한주민들과의 공동생활 방안」(10.9%), 「남북한의 통일정책」(8.6%)의 순이었으며, 「특별한 교육이 필요없음」은 0.6%에 불과하였다(<그림 4-7> 참조).

따라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통일 이후 상황이나 통일국가의 경

협 등이 통일 이후와 관련된 하나의 범주라고 본다면 국민들은 북한의 실상 자체보다 통일 이후의 미래상에 보다 큰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질문에 대해 1994년도 여론조사에서는 통일 이후의 상황이 3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북한의 실상(30.3%), 통일된 국가의 경험(15.1%), 북한주민과의 공동생활(12.4%), 남북한의 통일정책(7.4%)의 순이었다. 1994년도와 1995년도 여론조사의 응답비율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1995년도 조사에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자세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통일 정책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국민들이 통일정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4년도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통일방안이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이 34.9%로 제일 많았던 점과 그 동안 정부의 통일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아 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은 통일정책의 내용에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자세(30.4%)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북한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을 보여주었다(<표 4-7A> 참조). 2순위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자세가 30.7%, 북한주민들과의 공동생활 19.9%, 통일 이후의 상황 19.1%, 남북한

<표 4-7A> 통일교육의 내용(1순위)

항 목		북한의 실상	통일 이후의 상황	통일된 국가의 경험	북한 주민 공동 생활 방안	남북 간의 통일 정책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자세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음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27.9	19.0	14.3	8.8	8.3	20.9	0.7	$\chi^2=9.09$ P=0.169
	여 자	27.1	17.5	11.5	13.0	8.9	21.5	0.5	
연 령	20대	25.0	19.1	8.9	11.8	12.5	22.3	0.5	$\chi^2=39.27$ P=0.026
	30대	29.3	20.4	14.9	9.1	7.0	19.0	0.2	
	40대	29.2	15.5	14.4	9.8	6.4	23.9	0.8	
	50대	29.0	17.3	13.9	12.3	7.4	18.8	1.2	
	60세 이상	16.1	14.3	17.9	14.3	7.1	30.4	0.0	
학 력	중졸 이하	25.0	15.1	14.8	13.6	6.5	23.8	1.2	$\chi^2=25.47$ P=0.013
	고졸	28.8	18.3	14.6	10.7	9.1	18.0	0.6	
	대재 이상	27.2	20.3	9.5	9.5	9.3	23.9	0.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4.0	5.2	16.7	16.7	13.5	24.0	0.0	$\chi^2=38.05$ P=0.034
	80~119만원	26.1	18.0	13.7	12.0	9.9	19.0	1.4	
	120~199만원	27.1	21.2	14.2	10.4	6.9	19.2	1.0	
	200~299만원	28.5	18.4	10.9	10.1	9.3	22.7	0.0	
	300만원 이상	29.8	17.3	10.7	9.8	7.6	24.9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9.1	18.8	12.3	8.7	9.3	21.0	0.9	$\chi^2=29.98$ P=0.185
	경 상	26.7	19.1	14.0	13.8	8.3	17.9	0.2	
	전 라	29.8	16.3	9.6	10.1	7.9	25.8	0.6	
	충 청	21.1	16.3	17.7	15.0	6.1	23.8	0.0	
	강 원	23.8	17.5	11.1	7.9	11.1	27.0	1.6	
전 체		27.5	18.3	12.9	10.9	8.6	21.2	0.6	N=1,500

의 통일정책 10.6%, 통일된 국가의 경험 10.4%, 북한의 실상 7.8%로 나타났다(<표 4-7B> 참조).

8. 통일교육의 방법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 못지 않게 방법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어떠한 방식의 통일 교육을 바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에 대비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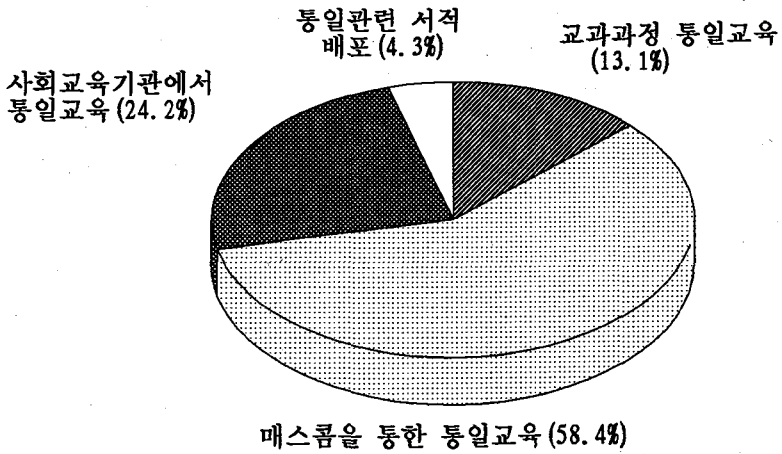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58.4%가 「매스콤을 통한 통일교육」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다음이 「사회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24.2%),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13.1%), 「통일관련 서적 배포」(4.3%)의 순이었다(<그림 4-8> 참조). 교과과정과 통일관련 서적을 통한 통일교육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국민들이 다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통일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통일교육을 단순히 학교교육이 아니라 평생 동안의 사회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와 아울러 매스콤을 통한 통일교육을 효과적이라고 본 응답자가 과반수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통일과정에서 매스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표 4-7B> 통일교육의 내용(2순위)

항 목 변 수		북한의	통일	통일된	북한	남북	통일을	특별한	유의도
		실상	이후의	국가의	주민	한의	대미한	교육이	
		상황	상황	경험	공동	통일	우리의	필요	
					생활	정책	자세	없음	
					방안				
성 별	남 자	8.3	19.8	10.8	18.3	9.9	31.8	1.2	$\chi^2=5.01$ P=0.543
	여 자	7.4	18.4	9.9	21.5	11.4	29.7	1.7	
연 령	20대	7.5	20.5	13.0	21.5	10.5	26.3	0.7	$\chi^2=39.75$ P=0.023
	30대	6.8	21.7	8.2	19.1	9.2	33.3	1.7	
	40대	8.8	18.8	6.9	17.6	11.1	35.2	1.5	
	50대	7.8	14.1	11.6	20.4	13.5	31.0	1.6	
	60세 이상	12.7	18.2	14.5	21.8	3.6	23.6	5.5	
학 력	중졸 이하	9.1	14.2	11.0	20.2	12.9	30.0	2.5	$\chi^2=15.46$ P=0.217
	고졸	7.6	19.4	10.0	19.1	10.1	32.1	1.6	
	대재 이상	7.2	21.8	10.4	20.8	9.8	29.4	0.6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5.3	18.9	13.7	14.7	8.4	36.8	2.1	$\chi^2=17.22$ P=0.839
	80~119만원	7.9	17.1	8.6	22.1	11.4	31.1	1.8	
	120~199만원	7.8	20.9	9.9	20.9	10.3	28.9	1.4	
	200~299만원	8.3	16.9	11.3	18.8	13.2	30.4	1.1	
	300만원 이상	8.0	21.0	10.7	18.8	7.1	32.6	1.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9.1	19.9	8.5	19.7	10.0	31.5	1.3	$\chi^2=22.22$ P=0.566
	경 상	7.2	18.8	10.4	19.5	10.7	31.6	1.9	
	전 라	7.3	16.3	12.4	24.2	12.9	24.7	2.2	
	충 청	6.1	20.4	12.9	19.7	10.2	29.9	0.7	
	강 원	3.3	18.0	18.0	13.1	11.5	36.1	0.0	
전 계		7.8	19.1	10.4	19.9	10.6	30.7	1.5	N=1,500

<그림 4-8> 통일교육의 효율적 방법



단순히 학교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범사회적 차원으로 확산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일교육의 매개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매스컴을 통한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여자(63.3%)가 남자(53.6%)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4-8> 참조).

<표 4-8> 통일교육의 효율적 방법

항 목 변 수		교과과정 통일교육	메스콤을 통한 통일교육	사회교육 기관에서 통일교육	통일관련 서적 배포	유의도
성 별	남 자	13.9	53.6	27.7	4.7	$\chi^2=15.18$ P=0.002
	여 자	12.2	63.3	20.7	3.8	
연 령	20대	18.2	53.6	23.2	5.0	$\chi^2=30.19$ P=0.003
	30대	7.2	65.4	23.6	3.8	
	40대	12.9	56.8	26.9	3.4	
	50대	13.6	56.2	25.6	4.6	
	60세 이상	14.3	66.1	16.1	3.6	
학 력	중졸 이하	13.0	59.9	22.2	4.9	$\chi^2=13.10$ P=0.042
	고졸	10.7	59.0	25.1	5.2	
	대재 이상	16.3	56.9	24.3	2.6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8.3	62.5	25.0	4.2	$\chi^2=11.95$ P=0.450
	80~119만원	10.6	61.3	22.2	6.0	
	120~199만원	13.7	58.1	24.0	4.2	
	200~299만원	15.7	54.1	26.1	4.0	
	300만원 이상	12.4	61.3	23.6	2.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2.6	56.7	26.7	4.0	$\chi^2=10.82$ P=0.544
	경 상	11.7	63.0	21.1	4.1	
	전 라	16.9	57.9	20.8	4.5	
	충 청	14.3	56.5	23.8	5.4	
	강 원	14.3	52.4	28.6	4.8	
전 체		13.1	58.4	24.2	4.3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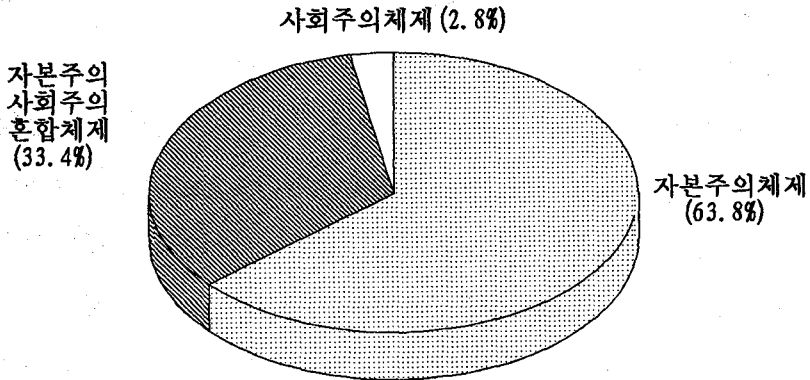
9. 통일후 바람직한 체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등을 통해 볼 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체제경쟁에서 일단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본주의체제만이 통일한국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귀하는 통일후 어떤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줄 체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3.8%가 「자본주의체제」라고 대답하여 통일후에도 현체제가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33.4%)를 선호한 응답도 상당수 차지하였다(<그림 4-9> 참조). 이는 국민의 1/3 정도가 현체제의 지속보다는 분배구조의 개선과 부문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2.8%)를 선호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동일 질문에 대한 1992년도 여론조사 결과는 「자본주의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54.6%였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가 39.7%, 「사회주의체제」는 5.7%였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일후 체제로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그림 4-9> 통일후 바람직한 체제



선호가 증가하고, 혼합체제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후 체제로서 혼합체제를 선호한다는 대답은 여성과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37.9%가 혼합체제를 희망한 반면, 남성은 28.8%였다. 그리고 20대에서 혼합체제를 선호하는 대답은 38.4%이었으나 60세 이상은 25.0%에 불과하다(<표 4-9> 참조).

<표 4-9> 통일후 바람직한 체제

항 목 변 수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혼합체제	사회주의 체제	유의도
성 별	남 자	68.4	28.8	2.8	$\chi^2=14.17$ P=0.001
	여 자	59.3	37.9	2.8	
연 령	20대	57.5	38.4	4.1	$\chi^2=22.74$ P=0.004
	30대	61.3	36.3	2.4	
	40대	66.7	30.3	3.0	
	50대	71.6	26.9	1.5	
	60세 이상	73.2	25.0	1.8	
학 력	중졸 이하	67.3	30.6	2.2	$\chi^2=14.40$ P=0.006
	고졸	59.7	36.1	4.2	
	대재 이상	67.0	31.6	1.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57.3	37.5	5.2	$\chi^2=13.78$ P=0.088
	80~119만원	63.0	32.7	4.2	
	120~199만원	61.5	35.6	2.9	
	200~299만원	64.8	33.6	1.6	
	300만원 이상	71.1	27.1	1.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5.7	31.9	2.4	$\chi^2=4.73$ P=0.786
	경 상	63.4	33.6	3.0	
	전 라	58.4	37.6	3.9	
	충 청	61.2	36.1	2.7	
	강 원	66.7	30.2	3.2	
전 체		63.8	33.4	2.8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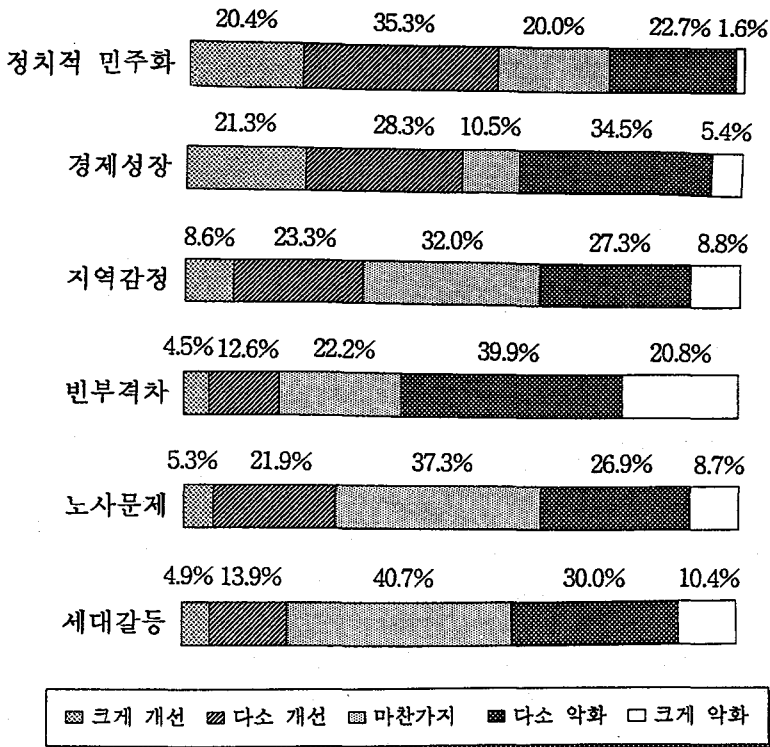
10. 통일후 분야별 전망

한반도 통일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예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후 다음 각 분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1995년도 조사에서는 기존의 「정치적 민주화」, 「경제성장」, 「빈부격차」 항목외에 「세대갈등」, 「지역감정」, 「노사문제」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중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다」를 제외하고 단순히 「개선(크게 또는 다소)」과 「악화(다소 또는 크게)」로 나누어 비교해 볼 때,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반면에 「빈부격차」, 「세대갈등」, 「지역감정」, 「노사문제」에서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으며, 특히 빈부격차의 심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0>, <표 4-10A~10F>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국민들은 통일 이후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보다 사회적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문별로 우선 정치적 민주화를 살펴 보면, 전체 응답자의 55.7%가 개선(「다소 개선될 것이다」 35.3%, 「크게 개선될 것이다」 20.4%)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악화(「다소 악화될 것이다」 22.7%, 「크게 악화될 것이다」 1.6%)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은 24.3%로 나타났다. 「마찬가지일 것이다」는 응답도

<그림 4-10> 통일후 전망



20.0%를 차지하였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의 개선에 대한 전망이 64.3%, 61.0%, 51.0%로 계속 낮아지고 있었으나 1995년도 조사에서는 개선에 대한 전망이 다소 높아졌다. 또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 3년 동안 18.9%, 22.4%, 30.6% 높아졌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다소 낮아졌다.

<표 4-10A> 통일후 전망: 정치적 민주화

변 수		항 목					유의도
		크게 개선	다소 개선	마찬 가지	다소 악화	크게 악화	
성 별	남 자	24.3	34.6	18.8	20.5	1.9	$\chi^2=15.98$ P=0.003
	여 자	16.6	36.1	21.2	24.8	1.3	
연 령	20대	22.5	33.2	22.5	20.2	1.6	$\chi^2=24.77$ P=0.074
	30대	23.3	35.3	16.6	23.1	1.7	
	40대	15.2	41.7	19.7	21.6	1.9	
	50대	17.9	34.3	19.8	27.2	0.9	
	60세 이상	21.4	28.6	28.6	17.9	3.6	
학 력	중졸 이하	11.7	40.1	23.8	24.1	0.3	$\chi^2=28.03$ P=0.000
	고졸	21.8	34.6	18.3	23.5	1.8	
	대졸 이상	24.1	33.2	19.9	20.7	2.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0.8	34.4	20.8	22.9	1.0	$\chi^2=11.05$ P=0.806
	80~119만원	22.9	33.8	20.8	21.1	1.4	
	120~199만원	17.9	36.2	20.8	23.7	1.5	
	200~299만원	22.7	36.8	18.7	20.8	1.1	
	300만원 이상	19.1	33.3	19.1	25.3	3.1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2.6	34.3	19.4	21.4	2.4	$\chi^2=19.08$ P=0.264
	경 상	17.5	33.6	21.6	26.4	0.9	
	전 라	20.8	43.3	16.9	18.0	1.1	
	충 청	19.7	35.4	21.8	22.4	0.7	
	강 원	17.5	36.5	20.6	23.8	1.6	
전 체		20.4	35.3	20.0	22.7	1.6	N=1,500

<표 4-10B> 통일후 전망: 경제성장

변 수		항 목	크게 개선	다소 개선	마찬 가지	다소 악화	크게 악화	유의도
성 별	남 자		24.7	24.7	8.4	36.6	5.6	$\chi^2=22.77$ P=0.000
	여 자		18.0	31.8	12.6	32.4	5.2	
연 령	20대		25.5	29.5	8.6	32.3	4.1	$\chi^2=33.72$ P=0.006
	30대		22.1	30.8	10.1	32.2	4.8	
	40대		22.0	24.2	10.2	36.4	7.2	
	50대		16.7	26.2	11.7	39.2	6.2	
	60세 이상		7.1	30.4	23.2	32.1	7.1	
학 력	중졸 이하		15.1	29.9	15.1	35.2	4.6	$\chi^2=26.75$ P=0.001
	고졸		21.4	28.4	11.4	33.0	5.8	
	대재 이상		25.2	27.0	0.4	36.0	5.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6.7	36.5	15.6	30.2	1.0	$\chi^2=22.56$ P=0.126
	80~119만원		22.5	28.9	13.4	30.6	4.6	
	120~199만원		20.6	26.3	10.2	37.1	5.8	
	200~299만원		22.1	28.0	9.1	36.0	4.8	
	300만원 이상		22.2	28.9	8.0	32.4	8.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2.7	29.1	12.7	30.6	4.9	$\chi^2=36.47$ P=0.002
	경 상		16.6	28.7	7.1	41.8	5.7	
	전 라		20.2	27.0	11.8	33.7	7.3	
	충 청		29.3	29.3	8.2	29.9	3.4	
	강 원		23.8	17.5	12.7	38.1	7.9	
전 체			21.3	28.3	10.5	34.5	5.4	N=1,500

<표 4-10C> 통일후 전망: 지역감정

변 수		항 목					유의도
		크게 개선	다소 개선	마찬 가지	다소 악화	크게 악화	
성 별	남 자	11.1	24.5	32.4	23.9	8.0	$\chi^2=19.29$ P=0.001
	여 자	6.1	22.1	31.6	30.6	9.5	
연 령	20대	9.1	23.0	33.2	25.5	9.3	$\chi^2=14.87$ P=0.534
	30대	10.8	22.8	33.4	25.0	7.9	
	40대	5.7	25.4	28.0	31.1	9.8	
	50대	8.3	22.2	30.9	29.9	8.6	
	60세 이상	3.6	26.8	37.5	25.0	7.1	
학 력	중졸 이하	4.9	22.5	33.6	31.8	7.1	$\chi^2=15.20$ P=0.055
	고졸	9.2	22.9	30.9	26.4	10.5	
	대재 이상	10.1	24.5	32.4	25.4	7.6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9.4	19.8	29.2	31.3	10.4	$\chi^2=10.47$ P=0.841
	80~119만원	8.8	24.3	33.5	25.4	8.1	
	120~199만원	7.9	23.7	32.1	27.5	8.8	
	200~299만원	9.3	22.7	31.7	29.6	6.7	
	300만원 이상	8.4	24.0	31.6	23.6	12.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8.9	26.6	29.1	26.1	9.3	$\chi^2=38.59$ P=0.001
	경 상	5.5	17.9	36.1	32.2	8.3	
	전 라	11.2	27.0	35.4	19.7	6.7	
	충 청	11.6	25.2	28.6	25.9	8.8	
	강 원	12.7	11.1	33.3	30.2	12.7	
전 체		8.6	23.3	32.0	27.3	8.8	N=1,500

<표 4-10D> 통일후 전망: 빈부격차

변 수		항 목		크게 개선	다소 개선	마찬 가지	다소 악화	크게 악화	유의도
		크게 개선	다소 개선						
성 별	남 자	6.3	13.8	20.2	38.1	21.6	$\chi^2=17.18$ P=0.002		
	여 자	2.7	11.4	24.1	41.8	20.0			
연 령	20대	4.8	12.7	21.6	39.8	21.1	$\chi^2=11.56$ P=0.774		
	30대	4.6	11.8	22.8	39.2	21.6			
	40대	1.9	10.6	25.0	41.3	21.2			
	50대	5.9	15.1	19.4	40.4	19.1			
	60세 이상	5.4	12.5	25.0	37.5	19.6			
학 력	중졸 이하	4.0	13.9	27.5	39.8	14.8	$\chi^2=13.95$ P=0.083		
	고졸	4.6	11.9	21.7	39.4	22.4			
	대졸 이상	4.6	12.7	19.5	40.8	22.5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4.2	10.4	22.9	45.8	16.7	$\chi^2=19.11$ P=0.263		
	80~119만원	4.2	15.1	25.7	38.0	16.9			
	120~199만원	4.2	12.1	23.8	39.8	20.0			
	200~299만원	4.8	11.7	18.1	43.2	22.1			
	300만원 이상	4.9	12.9	20.4	34.7	27.1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4.7	13.1	21.9	38.0	22.3	$\chi^2=14.88$ P=0.534		
	경 상	3.9	10.3	21.8	44.1	19.8			
	전 라	6.2	12.9	22.5	38.8	19.7			
	충 청	2.7	18.4	24.5	36.7	17.7			
	강 원	4.8	7.9	22.2	42.9	22.2			
전 체		4.5	12.6	22.2	39.9	20.8	N=1,500		

<표 4-10E> 통일후 전망: 노사문제

변 수		항 목					유의도
		크게 개선	다소 개선	마찬 가지	다소 악화	크게 악화	
성 별	남 자	7.2	24.3	34.5	25.9	8.2	$\chi^2=18.11$ P=0.001
	여 자	3.4	19.5	40.1	27.9	9.2	
연 령	20대	5.9	20.5	40.5	23.9	9.3	$\chi^2=24.31$ P=0.083
	30대	4.3	20.4	36.1	29.6	9.6	
	40대	4.9	23.5	37.5	27.3	6.8	
	50대	7.1	23.8	31.5	28.7	9.0	
	60세 이상	0.0	25.0	53.6	17.9	3.6	
학 력	중졸 이하	5.9	18.2	43.8	27.2	4.9	$\chi^2=21.47$ P=0.006
	고졸	4.6	21.1	36.6	28.8	8.9	
	대재 이상	6.0	25.2	34.0	24.1	10.7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7.3	25.0	36.5	29.2	2.1	$\chi^2=17.12$ P=0.378
	80~119만원	4.6	19.0	42.3	27.1	7.0	
	120~199만원	4.8	22.3	36.0	28.5	8.5	
	200~299만원	5.9	23.2	36.0	25.3	9.6	
	300만원 이상	5.8	20.9	36.4	24.4	12.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2	22.7	35.0	26.6	9.5	$\chi^2=17.37$ P=0.362
	경 상	4.1	19.8	38.9	29.7	7.6	
	전 라	6.2	24.7	34.3	27.5	7.3	
	충 청	2.7	21.1	42.9	23.8	9.5	
	강 원	7.9	20.6	46.0	15.9	9.5	
전 체		5.3	21.9	37.3	26.9	8.7	N=1,500

<표 4-10F> 통일후 전망: 세대갈등

변 수		항 목					유의도
		크게 개선	다소 개선	마찬 가지	다소 악화	크게 악화	
성 별	남 자	6.6	16.6	38.7	28.7	9.4	$\chi^2=19.52$ P=0.001
	여 자	3.3	11.3	42.7	31.3	11.4	
연 령	20대	5.2	14.5	43.2	26.6	10.5	$\chi^2=11.63$ P=0.769
	30대	5.0	13.0	39.2	30.8	12.0	
	40대	3.4	13.3	39.4	33.7	10.2	
	50대	6.2	14.8	39.5	30.2	9.3	
	60세 이상	1.8	14.3	46.4	32.1	5.4	
학 령	중졸 이하	2.8	12.3	45.4	32.4	7.1	$\chi^2=16.94$ P=0.031
	고졸	5.6	13.8	39.4	28.2	12.9	
	대재 이상	5.4	15.1	39.6	30.8	9.1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7.3	18.8	36.5	27.1	10.4	$\chi^2=14.01$ P=0.598
	80~119만원	5.6	12.7	41.2	31.3	9.2	
	120~199만원	4.2	13.3	38.8	32.3	11.3	
	200~299만원	4.0	12.5	45.1	28.5	9.9	
	300만원 이상	6.2	17.3	39.1	26.7	10.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1	14.2	40.9	28.8	10.0	$\chi^2=21.35$ P=0.166
	경 상	3.9	10.8	42.1	33.3	9.9	
	전 라	4.5	13.5	43.3	29.8	9.0	
	충 청	3.4	21.8	36.1	25.2	13.6	
	강 원	4.8	15.9	33.3	31.7	14.3	
전 체		4.9	13.9	40.7	30.0	10.4	N=1,500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6%가 개선(「다소 개선」 28.3%, 「크게 개선」 21.3%)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악화(「다소 악화」 34.5%, 「크게 악화」 5.4%)와 마찬가지로는 대답이 각각 39.9%와 10.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통일 이후 경제성장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경제성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대답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66.4% → 59.2% → 49.3%) 악화될 것이라는 대답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22.1% → 28.6% → 41.7%). 이와 비교해 본다면 통일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추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 이후 빈부격차가 악화(「다소 악화」 39.9%, 「크게 악화」 20.8%)될 것이라는 견해는 전체의 60.7%인 반면, 마찬가지로는 22.2%였으며, 개선(「다소 개선」 12.6%, 「크게 개선」 4.5%)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17.1%만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은 통일 이후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서의 마찬가지로 비관적 전망의 강화 추세가 1995년을 기점으로 멈추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992년부터 1994년 사이 빈부격차가 악화될 것이라는 비중은 40.8% → 50.0% → 64.0%로 증가 추세에 놓여 있었다.

지역감정에 대하여 악화(「다소 악화」 27.3%, 「크게 악화」 8.8%)될 것이라는 견해는 전체의 36.1%였으며, 「마찬가지」는

32.0%, 개선(「다소 개선」 23.3%, 「크게 개선」 8.6%)은 31.9%를 차지하여 악화가 다소 우세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엇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지역감정은 여전히 현재와 같은 정도로 남아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사문제는 악화(「다소 악화」 26.9%, 「크게 악화」 8.7%)가 35.6%, 마찬가지로 37.3%, 개선(「다소 개선」 21.9%, 「크게 개선」 5.3%)이 27.2%를 차지하였다. 한편 세대갈등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악화(「다소 악화」 30.0%, 「크게 악화」 10.4%) 40.4%, 「마찬가지」 40.7%, 개선(「다소 개선」 13.9%, 「크게 개선」 4.9%) 18.8%로 나타났다.

제 V 장 통일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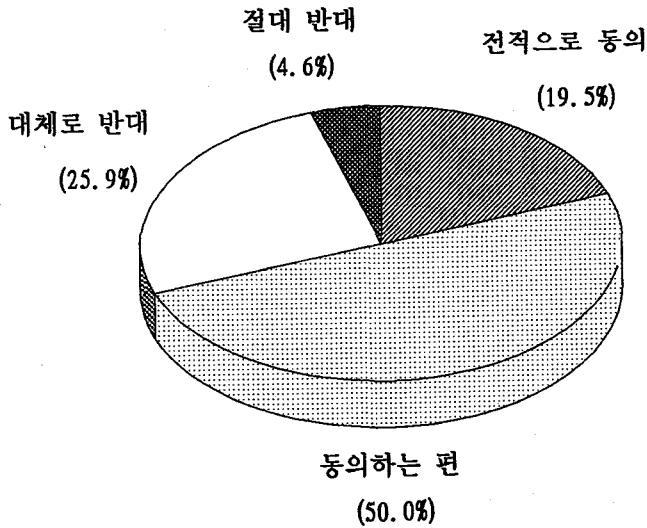
1.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통일 이후 통일 후유증을 극복하고 남북한간 사회통합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이다. 남북한의 국력격차를 생각한다면 상당한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 단기간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도 높다. 어떠한 경우든 통일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통일열망과 통일비용 부담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응답자 가운데 「전적으로 동의한다」(19.5%)와 「동의하는 편이다」(50.0%)는 긍정적인 반응은 69.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25.9%)와 「절대 반대한다」(4.6%)는 부정적인 반응은 30.5%로 나타났다(<그림 5-1> 참조). 따라서 국민들의 2/3 이상은 통일비용에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3년과 1994년도 여론조사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유사하다. 1993년과 1994년도 조사에서는 긍정

<그림 5-1>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적인 반응이 각각 63.4%와 62.2%였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각각 20.0%와 18.1%, 찬성(동의)도 반대도 아니라는 유보적인 반응도 15.2%와 15.7%로 나타났다. 1995년도 조사에서 긍정적, 부정적 반응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유보적인 문항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동의(82.2%)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300만원 이상에서는 64.0%가 동의하였으나 79만원 이하에서는 77.0%가 통일비용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강렬한 바람을 드러냈다(<표 5-1> 참조).

<표 5-1>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항 목 변 수		전적으로 동의	동의하는 편	대체로 반대	절대 반대	유의도
성 별	남 자	22.8	49.6	23.1	4.6	$\chi^2=13.20$ P=0.004
	여 자	16.2	50.4	28.8	4.6	
연 령	20대	16.4	51.1	27.7	4.8	$\chi^2=13.50$ P=0.334
	30대	19.2	51.0	25.7	4.1	
	40대	18.6	50.4	26.5	4.5	
	50대	22.8	46.6	25.6	4.9	
	60세 이상	30.4	51.8	12.5	5.4	
학 력	중졸 이하	23.5	47.2	24.7	4.6	$\chi^2=9.13$ P=0.166
	고졸	19.9	51.3	25.0	3.9	
	대재 이상	16.3	50.1	28.0	5.6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6.0	51.0	15.6	7.3	$\chi^2=24.80$ P=0.016
	80~119만원	23.2	48.6	25.0	3.2	
	120~199만원	20.0	50.4	25.8	3.8	
	200~299만원	16.0	51.7	28.5	3.7	
	300만원 이상	16.4	47.6	27.6	8.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9.2	50.1	25.6	5.2	$\chi^2=41.16$ P=0.000
	경 상	12.2	54.9	27.4	5.5	
	전 라	29.2	43.3	24.7	2.8	
	충 청	23.8	46.9	25.9	3.4	
	강 원	34.9	41.3	23.8	0.0	
전 체		19.5	50.0	25.9	4.6	N=1,500

2. 북한의 식량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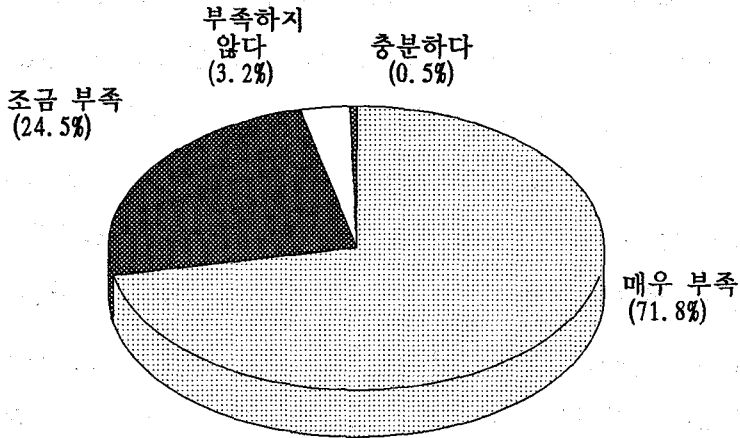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귀하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는 대답이 71.8%, 「조금 부족하다」가 24.5%를 차지하였다(<그림 5-2> 참조).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96.3%는 북한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족하지 않다」와 「충분하다」는 대답은 각각 3.2%, 0.5%에 불과하였다. 배경변수별로는 어느 변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2> 참조).

즉 국민의 대부분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계속된 북한 식량난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와 한국의 대북 쌀지원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95년 여름 3차례에 걸친 북한수해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국민들은 북한의 향후 식량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북 경제지원

대북 쌀지원 과정에서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렸으나 우리의 기대는 무산되고 남북관계는 오히려 경색되고 말았다.

<그림 5-2> 북한의 식량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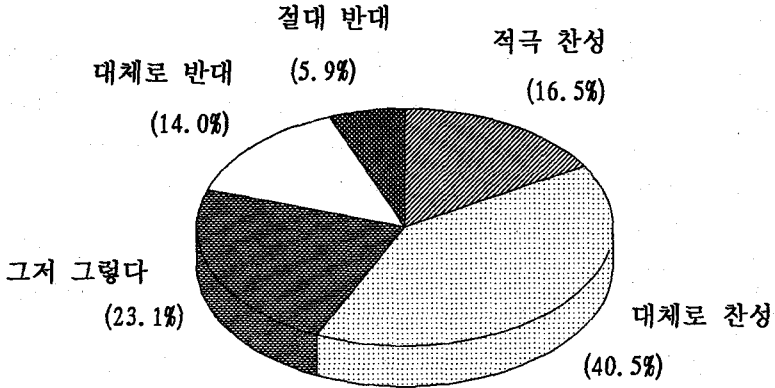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수재피해에 대한 지원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수해복구 또는 경제 지원 등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경우를 예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우리가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40.5%)와 「적극 찬성한다」(16.5%)는 경제적 지원을 찬성한다는 대답이 57.0%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14.0%)와 「절대 반

<표 5-2> 북한의 식량사정

항 목 변 수		매 우 부 족	조 금 부 족	부 족하 지 않 다	충 분하 다	유 의도
성 별	남 자	73.2	23.6	2.5	0.7	$\chi^2=3.36$ P=0.339
	여 자	70.4	25.3	3.8	0.4	
연 령	20대	70.5	25.9	3.0	0.7	$\chi^2=12.21$ P=0.429
	30대	67.8	27.4	4.1	0.7	
	40대	76.5	20.5	3.0	0.0	
	50대	74.4	22.8	2.5	0.3	
	60세 이상	75.0	19.6	3.6	1.8	
학 력	중졸 이하	73.1	22.8	3.7	0.3	$\chi^2=1.94$ P=0.925
	고졸	71.3	24.8	3.1	0.7	
	대재 이상	71.6	25.0	3.0	0.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71.9	24.0	4.2	0.0	$\chi^2=8.20$ P=0.769
	80~119만원	75.0	21.5	2.5	1.1	
	120~199만원	71.3	25.8	2.5	0.4	
	200~299만원	71.2	24.8	3.7	0.3	
	300만원 이상	69.8	24.9	4.4	0.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74.2	23.0	2.4	0.4	$\chi^2=15.00$ P=0.241
	경 상	68.0	26.9	4.6	0.5	
	전 라	72.5	25.3	1.1	1.1	
	충 청	70.7	24.5	4.8	0.0	
	강 원	73.0	20.6	4.8	1.6	
전 체		71.8	24.5	3.2	0.5	N=1,500

<그림 5-3> 대북 경제지원



대한다」(5.9%)는 반대하는 대답이 19.9%를 차지했다.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대답도 23.1%로 비교적 많았다(<그림 5-3> 참조).

북한당국의 공식적 요청에 대한 경제지원을 찬성(적극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62.9%)가 여성(51.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66.1)에서 특히 높았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지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반응(중졸 이하 44.2%, 고졸 55.6%, 대재 이상 67.2%)을 보였다.

한편 대북 경제지원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득계층별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표 5-3> 대북 경제지원

항 목		적극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절대 반대한다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20.1	42.8	19.2	11.9	6.0	$\chi^2=27.74$ P=0.000
	여 자	13.0	38.2	26.9	16.0	5.8	
연 령	20대	20.0	46.1	22.3	9.5	2.0	$\chi^2=70.24$ P=0.000
	30대	18.5	37.7	26.7	11.8	5.3	
	40대	12.5	43.2	20.1	17.8	6.4	
	50대	11.4	35.5	22.5	19.1	11.4	
	60세 이상	23.2	32.1	19.6	17.9	7.1	
학 력	중졸 이하	13.0	31.2	25.0	20.7	10.2	$\chi^2=55.23$ P=0.000
	고졸	15.3	40.3	25.1	13.7	5.6	
	대재 이상	20.5	46.7	19.1	10.1	3.6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3.5	33.3	20.8	16.7	15.6	$\chi^2=46.42$ P=0.000
	80~119만원	16.5	38.7	18.7	18.3	7.7	
	120~199만원	16.3	42.9	24.6	10.4	5.8	
	200~299만원	20.0	40.8	22.9	12.5	3.7	
	300만원 이상	12.4	39.6	26.2	18.2	3.6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6.1	39.7	26.4	13.7	4.0	$\chi^2=46.16$ P=0.000
	경 상	13.8	42.5	22.8	14.3	6.7	
	전 라	23.6	38.8	22.5	7.9	7.3	
	충 청	14.3	39.5	13.6	21.8	10.9	
	강 원	25.4	41.3	12.7	14.3	6.3	
전 체		16.5	40.5	23.1	14.0	5.9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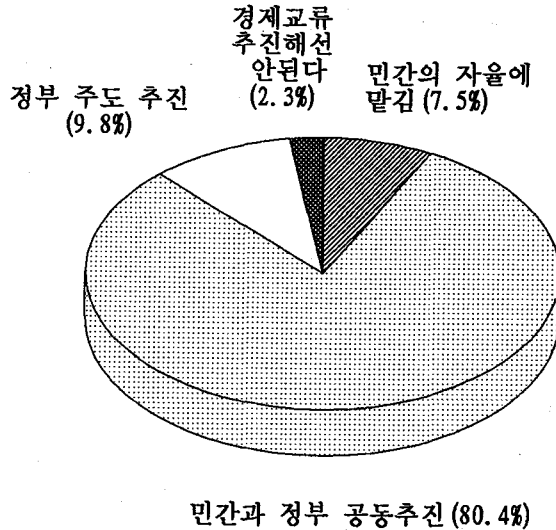
것이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경제지원을 찬성하는 비율은 80~119만원층이 55.2%, 120~199만원층이 59.2%, 200~299만원층이 60.8%인 반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7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52.0%와 46.8%를 보였다(<표 5-3> 참조).

4. 남북경협 및 인적 교류 추진

북한이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민간 부문만을 접촉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주체로 정부의 주도하에 민간을 조화시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남북한간 기본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귀하는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80.4%)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9.8%)와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7.5%)는 상반된 입장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경제협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대답은 2.3%로 북한과의 접촉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그림 5-4-1> 참조). 정부 주도를 선호하

<그림 5-4-1> 남북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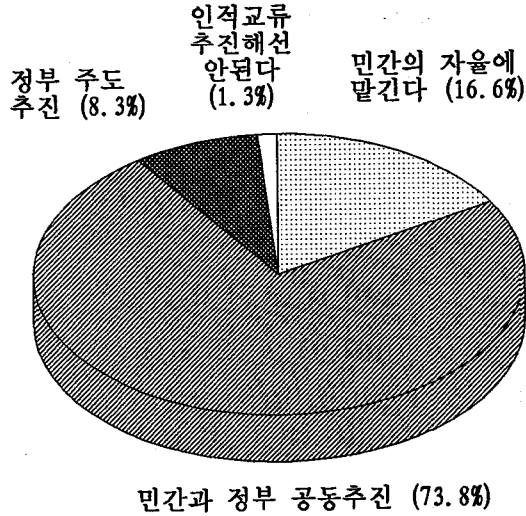
는 경향은 학력(중졸 이하 15.7%, 고졸 8.9%, 대재 이상 7.2%)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1> 참조).

‘민간과 정부의 공동추진’ 항목이 배제된 1994년도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주도」가 56.6%, 「민간의 자율」이 39.7%로 나타나 정부 주도가 앞선 가운데 국민들의 생각은 정부 주도와 민간 자율로 나뉘어 있었다. 1995년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남북경협은 민간과 정부의 공동추진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을 민간의 자율에만 두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4-1> 남북경협

항 목 변 수		민간의	민간과	정부	경제교류	유의도
		자율에 맡김	정부 공동추진	주도 추진	추진해선 안된다	
성 별	남 자	9.2	78.7	9.1	2.9	$\chi^2=10.66$ P=0.014
	여 자	5.7	82.2	10.5	1.6	
연 령	20대	8.2	82.7	6.8	2.3	$\chi^2=18.38$ P=0.105
	30대	6.5	83.2	9.1	1.2	
	40대	8.7	78.0	10.2	3.0	
	50대	7.1	76.9	13.0	3.1	
	60세 이상	5.4	75.0	17.9	1.8	
학 력	중졸 이하	7.1	74.7	15.7	2.5	$\chi^2=20.76$ P=0.002
	고졸	6.4	82.6	8.9	2.1	
	대재 이상	9.1	81.3	7.2	2.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7.3	77.1	12.5	3.1	$\chi^2=5.67$ P=0.932
	80~119만원	7.7	78.2	11.3	2.8	
	120~199만원	6.7	81.7	9.2	2.3	
	200~299만원	8.5	79.5	10.1	1.9	
	300만원 이상	7.1	83.6	7.6	1.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8.0	80.5	9.7	1.8	$\chi^2=15.11$ P=0.235
	경 상	6.9	79.1	12.0	2.1	
	전 라	6.2	84.8	6.2	2.8	
	충 청	6.1	82.3	8.8	2.7	
	장 원	12.7	73.0	7.9	6.3	
전 체		7.5	80.4	9.8	2.3	N=1,500

<그림 5-4-2> 인적 교류 추진방안



남북경협에 대한 추진방안에 덧붙여 인적 교류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학자, 예술인, 종교인의 방북 등 남북한간 인적 교류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민간과 정부의 공동추진」(73.8%)에 대한 지지도가 남북경협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율」(16.6%)이 「정부주도」(8.3%)보다 다소 높은 반응도를 보였다(<그림 5-4-2> 참조).

연령별로는 젊은층일수록 민간 부분의 자율적 역할(20대 21.1%, 30대 17.5%)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

<표 5-4-2> 인적 교류 추진방안

항 목		민간의 자율에 맡김	민간과 정부 공동추진	정부 주도 추진	인적교류 추진해선 안된다	유의도
변 수						
성 별	남 자	18.6	71.6	9.1	0.7	$\chi^2=9.94$ P=0.019
	여 자	14.6	76.0	7.6	1.9	
연 령	20대	21.1	71.8	5.0	2.0	$\chi^2=47.63$ P=0.000
	30대	17.5	76.0	5.3	1.2	
	40대	15.2	73.5	10.2	1.1	
	50대	11.7	74.7	13.3	0.3	
	60세 이상	8.9	69.6	19.6	1.8	
학 력	중졸 이하	11.7	73.5	13.3	1.5	$\chi^2=21.66$ P=0.001
	고졸	16.5	74.7	7.3	1.5	
	대재 이상	19.9	72.8	6.6	0.8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6.7	78.1	4.2	1.0	$\chi^2=18.47$ P=0.102
	80~119만원	14.1	76.1	9.2	0.7	
	120~199만원	13.7	76.3	8.7	1.3	
	200~299만원	21.3	68.5	8.0	2.1	
	300만원 이상	18.7	72.0	8.9	0.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7.0	73.4	8.3	1.3	$\chi^2=16.97$ P=0.151
	경 상	12.6	76.8	8.5	2.1	
	전 라	20.2	73.6	6.2	0.0	
	충 청	19.0	70.7	9.5	0.7	
	강 원	23.8	65.1	11.1	0.0	
전 체		16.6	73.8	8.3	1.3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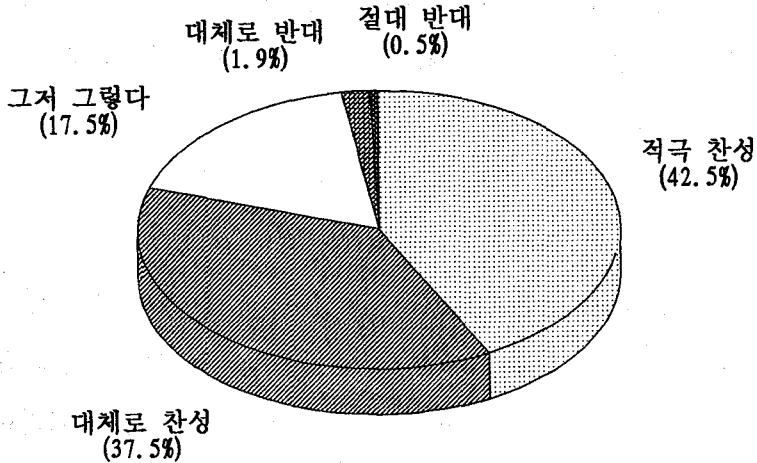
령층일수록 정부주도 방식(50대 13.3%, 60대 19.6%)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11.7%, 고졸 16.5%, 대재 이상 19.9%)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표 5-4-2> 참조).

5.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1994년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합의되었던 남북한 정상회담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지만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는 남북정상의 만남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찬성(「적극 찬성한다」 42.5%,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7.5%)한다는 의견은 80.0%인 반면, 반대(「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1.9%, 「절대 반대한다」 0.5%)한다는 응답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17.5%를 차지하였다(<그림 5-5-1> 참조).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는 성별과 학력에서 뚜렷이 나타나서 남자와 고학력층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았다(<표 5-5-1> 참조).

<그림 5-5-1> 남북정상회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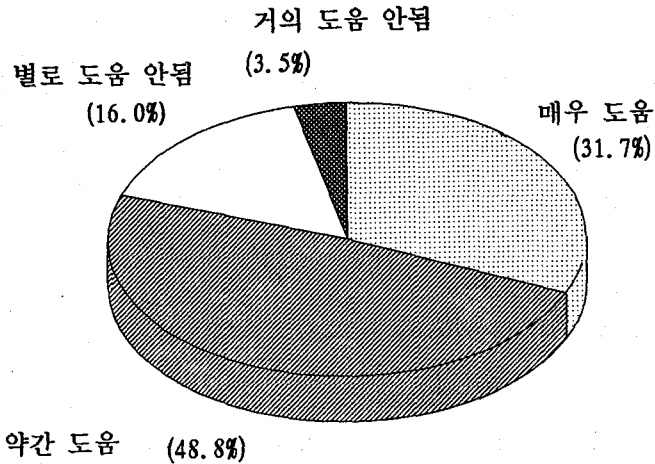
1993년과 1994년도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찬성)율은 각각 87.3%, 91.0%로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에 비해 1995년도의 지지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응답이 5.5%에서 17.5%로 증가함),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김정일의 공식승계가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 질문에서 남북정상의 만남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48.8%,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5-5-1> 남북정상회담 개최

변 수		항 목		적극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절대 반대한다	유의도
성 별	남 자	52.8	33.2	11.8	1.7	0.4	$\chi^2=73.32$ P=0.000		
	여 자	32.2	41.8	23.2	2.1	0.7			
연 령	20대	41.6	37.7	18.0	2.0	0.7	$\chi^2=20.13$ P=0.214		
	30대	45.4	37.0	15.9	1.4	0.2			
	40대	44.3	34.5	19.7	1.1	0.4			
	50대	36.1	42.9	17.0	3.1	0.9			
	60세 이상	55.4	23.2	19.6	1.8	0.0			
학 력	중졸 이하	38.3	36.7	21.3	2.8	0.9	$\chi^2=15.83$ P=0.045		
	고졸	41.8	37.0	19.2	1.6	0.4			
	대졸 이상	46.1	38.8	12.9	1.8	0.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37.5	36.5	19.8	4.2	2.1	$\chi^2=24.45$ P=0.080		
	80~119만원	47.2	34.5	15.8	1.8	0.7			
	120~199만원	42.1	41.5	14.6	1.3	0.4			
	200~299만원	42.9	33.3	21.3	1.9	0.5			
	300만원 이상	38.7	39.6	19.1	2.7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44.6	38.4	15.5	1.2	0.3	$\chi^2=40.65$ P=0.001		
	경 상	34.9	40.0	21.8	2.3	0.9			
	전 라	53.9	28.7	16.3	0.6	0.6			
	충 청	40.1	40.1	14.3	4.8	0.7			
	강 원	44.4	30.2	20.6	4.8	0.0			
전 체		42.5	37.5	17.5	1.9	0.5	N=1,500		

<그림 5-5-2>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31.7%)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은 80.5%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6.0%)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3.5%)는 부정적인 반응은 19.5%로 나타났다(<그림 5-5-2> 참조). 이것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지지를 묻는 첫번째 질문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대체로 정상회담 개최에 찬성을 표명한 사람은 남북정상의 만남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는 성별에서만 뚜렷한 것으로 드러나 남자(84.5%)가 여자(76.5%)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5-2> 참조).

<표 5-5-2>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항 목 변 수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별로 도움 안됨	거의 도움 안됨	유의도
성 별	남 자	40.1	44.4	12.1	3.5	$\chi^2=53.52$ P=0.000
	여 자	23.3	53.2	19.9	3.6	
연 령	20대	29.1	49.3	18.4	3.2	$\chi^2=10.96$ P=0.532
	30대	35.8	47.4	13.5	3.4	
	40대	30.3	50.8	16.3	2.7	
	50대	29.9	49.4	15.7	4.9	
	60세 이상	37.5	42.9	16.1	3.6	
학 력	중졸 이하	25.3	51.5	19.1	4.0	$\chi^2=21.01$ P=0.002
	고졸	30.0	49.3	17.5	3.1	
	대재 이상	38.0	46.3	11.9	3.8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5.0	46.9	20.8	7.3	$\chi^2=14.10$ P=0.294
	80~119만원	32.4	45.1	18.0	4.6	
	120~199만원	31.5	50.8	15.0	2.7	
	200~299만원	34.1	49.3	13.9	2.7	
	300만원 이상	29.8	48.9	17.3	4.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0.9	52.9	13.0	3.2	$\chi^2=39.65$ P=0.000
	경 상	29.9	49.9	17.5	2.8	
	전 라	41.6	40.4	12.9	5.1	
	충 청	25.2	43.5	27.2	4.1	
	강 원	39.7	33.3	20.6	6.3	
전 체		31.7	48.8	16.0	3.5	N=1,500

제VI장 요약 및 결론

과거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해 볼 때 국민들의 북한 및 통일관련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1995년도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남한의 상대적 우위가 더욱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을 경제, 경쟁, 적대 등의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개방 전망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아졌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의 우세와 통일 예상시기가 늦추어질 것이라는 전망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국민들은 북한체제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북한은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북한의 우세로 평가된 군사력 조차도 북한의 우위 정도가 약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통일후 바람직한 체제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는 더욱 높아졌다.

한편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경제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정부의 현정책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인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1. 북한관련 인식

과반수 이상(55.7%)의 국민들은 연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극소수(5.6%) 만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표명한 사람은 38.7%였다. 일상생활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는 북한은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국민들은 북한을 지원대상 또는 협력대상과 같은 긍정적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경쟁, 적대 등의 부정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을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은 1994년도 조사의 40.3%에서 63.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대북 쌀지원 과정에서 북한의 비상식적인 돌출행동 등이 국민들을 자극하였고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당수(38.1%)는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여전하지만 적화통일 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럴만한 힘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과반수가 넘는 55.2%는 북

한의 적화통일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국민들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54.8%)을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 47.7%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 1993년도 여론조사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대부분(82.2%)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국민들은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31.4%)와 반대(31.9%)가 엇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지지도 반대도 아니라고 생각한 응답(36.6%)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근 2~3년 동안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 1993년도 조사에서는 65.7%, 1994년에는 71.8%의 응답자가 북한이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1995년 조사에서는 48.2%만이 북한이 변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 정도가 과거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개방 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다수의 국민들은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이 소극적 개방(71.7%)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개방이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19.7%나 되었다.

비록 북한의 생존과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반반으로 나뉘고 있지만,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해 나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한은 군사력을 제외한 모든 부문(자유, 평등, 자주, 민주, 도덕, 문화·예술, 인권, 경제)에서 북한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유일하게 북한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 군사력 항목에서도 1995년도(67.6%)에는 1994년도(76.0%)에 비해 북한이 우월하다는 대답이 감소하였다.

남북한의 이질화는 언어(89.0%), 여가생활(82.1%), 직장생활(80.8%), 풍습(71.1%), 가족생활(69.6%)의 순으로 이질화가 크게 진행되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질화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북한출신일 경우 사고방식(67.6%)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 통일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

통일의교에 가장 주요한 주변국가로 국민들은 미국(38.8%)을 꼽고 있었다.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 다음으로 국민들은 중국(24.9%)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일본(10.2%)과 러시아(2.7%)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았다. 그러나 통일을 바라는 주변국이 없다는 응답도 23.5%를 차지하여 통일을 남북 당사자 문제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는 역시 미국(70.1%)이었

으며, 북한(16.4%)이 그 다음을 차지하여 중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높은 친밀감을 보였다. 한편 국민들은 북한이 가장 가깝게 지내려는 나라로 중국(54.4%)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3.9%)을 최하위에 두고 있어 북한이 남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에 대해 국민들의 대다수(86.9%)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협조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 여론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이 능사가 아니며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UN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대부분(81.4%)의 국민들은 이러한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2~3년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진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55.6%)이 다소 우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고,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등의 질문에서 보여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

3. 통일정책관련 인식

통일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58.0%)의 국민들은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을 선호하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34.3%) 국민들도 상당수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통일이 실질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통일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재고하려는 국민들도 예상할 수 있다.

국민들의 과반수 정도는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4.4%는 한세대(3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1994년도 조사에서 30년 이내(누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91.0%를 차지하였음과 비교해 볼 때 통일 예상시기에 대한 전망이 다소 늦추어져서 전년도에 비해 비관적인 견해가 높아졌다.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과정에 대해서는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견해가 35.1%를 차지하여 통일환경의 변화(27.7%), 국민들의 여론수렴(20.0%),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처(17.2%)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도 여론조사와 반응도의 순서에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정책이 국내정치 상황에 연계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일부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해서 2/3 정도의 국민들은 잘하거나 보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66.9%)를 내리고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경제교류 및 협력(42.3%)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산가족 상봉(20.7%), 군사적 대결 해소(14.6%), 정치적 신뢰구축(13.7%)을 들었다. 1994년도 조사에서 남북한 신뢰구축이 최우선 과제였음과 비교해 볼 때 정치적인 신뢰구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경제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다.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정치적 민주화(36.8%)와 경제성장(34.0%)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의 통일논의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문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민들이 통일기반 조성의 핵심으로 사회 각분야에서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중요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국민들은 북한의 실상(27.5%)과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자세(21.2%)를 중요시 하였다. 또한 통일 이후의 상황(18.3%)에 대한 관심도 다소 높았다. 국민들은 이러한 통일교육이 다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스콤(58.4%)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후 바람직한 체제로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63.8%)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33.4%)에 대한 선호도 1/3 정도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1992년도 여론

조사와 비교하여 통일후 체제로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혼합체제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통일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변화에 대해 정치적 민주화(55.7%)와 경제성장(49.6%)은 상대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빈부격차, 세대갈등, 노사문제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경우 개선에 대한 비율은 지난 3년 동안의 감소추세가 멈추거나 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다른 분야의 전망에서 악화가 우세한 것은 통일후유증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통일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급진적 통일은 단기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일비용을 감수하면서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에 대해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69.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반응은 30.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3년과 1994년도의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다수의 국민들은 통일비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기통일을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부족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부족(71.8%)하거나 조금 부족(24.5%)한 것으로 평가하여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1995년 여름 수해로 인해 향후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경제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57.0%)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23.1%)는 유보적인 입장과 반대(19.9%) 입장은 20% 내외에 머물렀다. 비록 국민들은 대북 쌀지원 과정 등을 통해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수의 국민들은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경제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각종 교류·협력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단계에서 남북경협과 인적 교류의 추진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민간과 정부의 공동추진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간과 정부의 공동추진에 대한 지지도는 남북경협에서는 80.4%, 인적 교류분야에서는 73.8%로 나타났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민간의 자율에만 두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식이 국민들에게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80.0%인 반

면 반대한다는 견해는 2.4%에 불과하였다. 김정일의 공식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지지율은 1993년(87.3%)과 1994년(91.0%)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80.5%를 차지하여 국민들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빈 면

부록: 설문지

빈 면

1995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민족통일연구원은 국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통일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는 한편,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확하게 파악·수렴하여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결과는 통계처리되어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통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통일문제에 대한 귀하의 평소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통일정책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설문에 대해 응답하실때 다음 사항들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이나 느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V 를 표시해 주십시오.
2.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 곳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1995년 11월

민족통일연구원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237-9288, FAX: 231-4304)

북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 귀하는 주위사람들과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 _____ ① 자주한다
 _____ ② 가끔한다
 _____ ③ 별로 하지 않는다
 _____ ④ 거의 하지 않는다

2.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지원대상
 _____ ② 협력대상
 _____ ③ 경쟁대상
 _____ ④ 경제대상
 _____ ⑤ 적대대상
 _____ ⑥ 모르겠다

3. 귀하는 북한의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다
 _____ ② 그러저럭 생존해 나갈 것이다
 _____ ③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
 _____ ④ 모르겠다

4. 귀하는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의 개방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전면적인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다
 _____ ②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다
 _____ ③ 개방이 후퇴할 것이다
 _____ ④ 모르겠다

5. 귀하는 최근 2~3년 동안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많이 변하고 있다
 _____ ② 약간 변하고 있다
 _____ ③ 별로 변하지 않았다
 _____ ④ 거의 변하지 않았다
 _____ ⑤ 모르겠다

6. 귀하는 앞으로 2~3년 내 남북한관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_____ ② 다소 진전될 것이다
 _____ ③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_____ ④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_____ ⑤ 모르겠다

7. 귀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 _____ ① 매우 크다
 _____ ② 다소 크다
 _____ ③ 별로 없다
 _____ ④ 거의 없다
 _____ ⑤ 모르겠다

8. 귀하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북한은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
 _____ ②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여전히나 그럴만한 힘이 없다.
 _____ ③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
 _____ ④ 모르겠다.

9.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이 이끄는 현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_____ ① 적극 지지한다
 _____ ② 다소 지지한다
 _____ ③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_____ ④ 다소 반대한다
 _____ ⑤ 적극 반대한다
 _____ ⑥ 모르겠다

10. 귀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좋다
- _____ ② 약간 좋다
- _____ ③ 보통이다
- _____ ④ 약간 나쁘다
- _____ ⑤ 아주 나쁘다
- _____ ⑥ 모르겠다

11. 귀하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부족하다
- _____ ② 조금 부족하다
- _____ ③ 부족하지 않다
- _____ ④ 충분하다
- _____ ⑤ 모르겠다

12.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서 남북한 중 어느쪽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X표를 하세요)

	남	한	북	한	모르겠다
① 자 유					
② 평 등					
③ 자 주					
④ 민 주					
⑤ 도 덕					
⑥ 문화·예술					
⑦ 군사력					
⑧ 인 권					
⑨ 경 제					

13. 귀하는 다음 항목에서 남북한간 이질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크다	약간 크다	차이없다	모르겠다
① 언 어				
② 가족생활				
③ 직장생활				
④ 여가생활				
⑤ 풍 습				

14. 통일 이후 귀하의 배우자가 북한출신이라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언어
- _____ ② 생활습관
- _____ ③ 사고방식
- _____ ④ 여가선용
- _____ ⑤ 문제없을 것이다
- _____ ⑥ 기타(무엇:)

통일환경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5. 귀하는 한반도의 통일외교에 가장 주요한 주변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미국
- _____ ② 일본
- _____ ③ 중국
- _____ ④ 러시아
- _____ ⑤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 없음
- _____ ⑥ 모르겠다

16. 귀하는 다음 국가 중 한국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북한
- _____ ② 미국
- _____ ③ 일본
- _____ ④ 중국
- _____ ⑤ 러시아
- _____ ⑥ 모르겠다

17. 귀하는 다음 국가 중 북한이 가장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한국
- _____ ② 미국
- _____ ③ 일본
- _____ ④ 중국
- _____ ⑤ 러시아
- _____ ⑥ 모르겠다

통일정책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8. 귀하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_____ ②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_____ ③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_____ ④ 모르겠다

19. 귀하는 북한이 일본 및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우리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무조건 협조하여야 한다
 _____ ②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협조한다
 _____ ③ 무조건 반대하여야 한다
 _____ ④ 모르겠다

20.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5년 이내
 _____ ② 10년 이내
 _____ ③ 20년 이내
 _____ ④ 30년 이내
 _____ ⑤ 30년 이상
 _____ ⑥ 모르겠다

21. 귀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적극 찬성한다
 _____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_____ ⑤ 절대 반대한다
 _____ ⑥ 모르겠다

22. 귀하는 남북정상의 만남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_____ ②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_____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_____ ④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_____ ⑤ 모르겠다

23. 귀하는 한국의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_____ ②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_____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_____ ④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_____ ⑤ 모르겠다

24. 귀하는 현 정부가 통일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_____ ② 대체로 잘 하고 있는 편이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대체로 못하고 있는 편이다
 _____ ⑤ 매우 못하고 있다
 _____ ⑥ 모르겠다

25. 귀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방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진다
 _____ ②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다
 _____ ③ 북한의 통일방안(대남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_____ ④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
 _____ ⑤ 모르겠다

26. 귀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분야의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정치적 신뢰구축
 _____ ② 군사적 대결 해소
 _____ ③ 경제교류 및 협력
 _____ ④ 체육·문화분야의 교류
 _____ ⑤ 이산가족 상봉
 _____ ⑥ 기타(무엇:)

27. 귀하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우리가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적극 찬성한다
 _____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_____ ⑤ 절대 반대한다

28. 귀하는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_____ ②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_____ ③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_____ ④ 경제협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_____ ⑤ 모르겠다

29. 귀하는 학자, 예술인, 종교인의 방북 등 남북한간 인적 교류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_____ ②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_____ ③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_____ ④ 인적 교류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_____ ⑤ 모르겠다

30. 귀하는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_____ ② 동의하는 편이다
 _____ ③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_____ ④ 절대 반대한다
 _____ ⑤ 모르겠다

31. 귀하는 다음 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정치적 민주화
 _____ ② 경제성장
 _____ ③ 지역감정
 _____ ④ 빈부격차
 _____ ⑤ 노사문제
 _____ ⑥ 세대갈등
 _____ ⑦ 모르겠다

32. 귀하는 통일에 대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개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 _____ ① 북한의 실상
 _____ ② 통일 이후의 상황
 _____ ③ 독일과 같이 통일된 국가의 경험
 _____ ④ 북한주민들과의 공동생활 방안
 _____ ⑤ 남북한의 통일정책
 _____ ⑥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자세
 _____ ⑦ 특별한 교육이 필요없음

33. 귀하는 통일에 대비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
 _____ ② 매스컴을 통한 통일교육
 _____ ③ 사회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
 _____ ④ 통일관련 서적 배포

통일 이후 미래상황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34. 귀하는 통일후 어떤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자본주의체제
 _____ ②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
 _____ ③ 사회주의체제
 _____ ④ 모르겠다

35. 귀하는 통일후 다음 각 분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크게 개선될 것이다	② 다소 개선될 것이다	③ 마찬 가지일 것이다	④ 다소 악화될 것이다	⑤ 크게 악화될 것이다
㉠ 정치적 민주화					
㉡ 경제 성장					
㉢ 지역 감정					
㉣ 빈부 격차					
㉤ 노사 문제					
㉥ 세대 갈등					

끝으로 귀하 자신에 관해 몇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3.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_____ ① 국민학교

_____ ② 중학교

_____ ③ 고등학교

_____ ④ 초급 전문대학 (2년제)

_____ ⑤ 4년제대학

_____ ⑥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가나다 순)?

_____ ① 기독교

_____ ② 민족종교(원불교, 대종교, 천도교 등)

_____ ③ 불교

_____ ④ 유교

_____ ⑤ 천주교

_____ ⑥ 기타(무엇: _____)

_____ ⑦ 없음

5. 귀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 _____ ① 서울
 _____ ② 경기
 _____ ③ 강원
 _____ ④ 충청
 _____ ⑤ 경상
 _____ ⑥ 전라
 _____ ⑦ 제주
 _____ ⑧ 이북
 _____ ⑨ 기타

6.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_____ ① 대도시
 _____ ② 중소도시
 _____ ③ 읍, 면지역

7. 귀하는 북한에 친인척이 있습니까?

-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8. 귀하의 한달 평균수입(소득, 이자, 잡수입 등 모두 포함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귀하의 전체 가구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두 가지 모두를 표시해 주십시오.

본인소득	전체 가구소득	
()	()	
① _____	_____	① 40만원 미만
② _____	_____	② 40~79만원
③ _____	_____	③ 80~119만원
④ _____	_____	④ 120~199만원
⑤ _____	_____	⑤ 200~299만원
⑥ _____	_____	⑥ 300~499만원
⑦ _____	_____	⑦ 500~999만원
⑧ _____	_____	⑧ 1000만원 이상

9. 귀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 없으면 괄호안에 직접 자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_____ 번 (무엇: _____)

< 보 기 >

전문직

- (01) 의사 (02) 약사, 간호사
 (03) 변호사, 판사, 검사 (04) 대학교수, 연구원
 (05) 교사, 학원강사 (06) 언론인, 방송인
 (07) 엔지니어(무엇:) (08) 종교인
 (09) 대학강사 (10) 기타 전문직(무엇:)

공무원 및 사회단체

- (11) 고급공무원(4급서기관 이상, 총경 이상)
 (12) 일반공무원(5급사무관 이하, 경정 이하)
 (13) 군인(영관급 이상) (14) 군인(위관급, 하사관)
 (15) 기능직 공무원(무엇:)
 (16) 고용직 공무원(무엇:)

기업체 (은행 및 금융업 포함)

- (21) 대기업체 경영주, 중역, 임원(이사급이상)
 (22) 중간관리직 사원(부장, 차장, 과장급)
 (23) 사무직 사원(대리, 계장, 평사원)
 (24) 중소기업 사장(무엇:)

판매 서비스직

- (31) 영세자영업 및 상점주인(무엇:)
 (32) 음식점, 여관, 세탁소 등의 주인(무엇:)
 (33) 복덕방, 부동산 중개인 (34) 점원
 (35) 서비스직 피고용인 (36) 수위, 경비원, 청소원
 (37) 외판원 (38) 행사, 노점상, 파출부
 (39) 기타 판매 서비스직

생산직

- (41) 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42) 숙련공(무엇:)
 (43) 공장근로자(무엇:) (44) 자동차·중장비 운전자
 (45) 막노동, 단순노동자 (46) 가내 수공업(무엇:)

농어업

- (51) 부농(소유경작 6,000평 이상)
 (52) 중농(3,000~6,000평 미만)
 (53) 소농(1,500~3,000평 미만)
 (54) 빈농(1,500평 미만) (55) 농업노동자, 품일꾼
 (56) 축산, 낙농업주 (57) 선주
 (58) 선원, 어부 (59) 기타 농어업(무엇:)

기타

- (61) 학생 (62) 주부
 (63) 무직 (64)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65) 군인(사병), 방위병, 전경 (66) 기타(무엇:)

10.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7개의 층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귀하는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⑦ ← 아주 높은지위

⑥

⑤

④ ← 중간정도

③

②

① ← 아주 낮은지위

조사원 기록사항

- 조사일시: 년 월 일

- 조사지역:

- 조사방법: () 면접
 () 응답자 자기기입
 () 면접과 응답자 자기기입의 병행

- 방문 회수: ()회

- 조사원 성명:

- 피면접자 전화번호: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과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부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화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軍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研究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 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 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研究報告書 95-2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7-9288, FAX : 231-4304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